朝鮮日報
夕刊
五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後繼內閣必持의 時局打開四原則

軍事、內政、外交等에亘하야

園公人選基礎標準

新內閣의重大任務

【東京電話同盟】近衛公의 大命拜辭로 時局打開의 責을 진 西園寺老公의 責任은 다시重加하게되어 西園寺公은 今回의 政變에際하야 從來와는 달라 表面的으로 重臣의 意見을 徵하지안코 自己一身의 責任으로 近衛公을 後繼內閣의 首班으로 奏薦한것은 注目할 一轉機로서 이는 從來政變마다 重臣의 意見을 徵하거나 或은 重臣會議를 開하고 次期政權의 歸趨를 決定하얏기때문에 何如튼 非難을 避하야 所謂 重臣빨락排擊의 素因을 지은데 鑑하야 今回는 老公一身의 責任으로 御下問에 奉答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西園寺公의 意圖하는바는 將來 元老업서진後의 政變에서는 內大臣、侍從長、樞密院議長의 三者가 輔弼의 責에 任하야 御下問에 奉答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려는데 잇는 模樣이다 그런데 後繼內閣의 首班奏薦에 對하야 西園寺公의 意圖는 近衛公 奏薦의 經緯로부터 推測하건대 即 非常時局을 擔當할 組閣의 重點은

一、肅軍의徹底 今回事件은 昭和聖代의 一大不祥事로 國軍歷史에 一大汚點을 印한것이므로 再次 如斯한 不祥事를 反復치안토록 爲先 무엇보담도 肅軍徹底를 期할것

二、政治各般에亘한 革新斷行 今回와如한 事態를 惹起한것은 實로 遺憾至極이다 如斯한 事態를 誘致한 原因動機를 愼重檢討하야 庶政各般에 亘하야 革新을 斷行할것

三、外交關係의調整 現下의 國際情勢는 實로 憂慮할것이잇슴에 鑑하야 東洋 平和確保의 盟主로서 自主的外交에 立脚하야 對英米蘇關係를 調整할것

四、참된擧國一致內閣樹立 齋藤、岡田兩內閣은 擧國一致內閣을 標榜해왓스나 形體만의 擧國이오 精神이 이에 伴하지안햇기때문에 政策遂行에 齟齬를 招來한것에 鑑하야 政治의 革新을 斷行하야 참으로實行하기爲해서 精神的結合上에 서는 擧國一致內閣이 아니면 안될모양이다

近衛公에再降下?

宇垣、平沼說有力

西園寺公善後策熟考

【東京電話同盟】近衛文麿公이 大命을 拜辭하게되엇기때문에 天皇陛下께서는 再次西園寺公을부르시사 後繼內閣의 銓考에 關하야 다시御下問하시엇스므로老公은 宸襟을奉答한데對하야 기페 謝罪書를上하고 삼가御前을退下하야 再次熟慮를 거듭하기로 되엇는데 現在內外의 情勢는 一日도遲延을 不許하는바잇기때문에 園公으로서는 五日再次宮中에 參內하야 御下問에奉答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再次의 奏薦에 關해서는 愼重又愼重을 期할것으로 보이는바 近衛公에게 大命이 再降下 하더라도 現在로는 이는 困難視되고 또有力候補인 湯淺 宮相이 內大臣으로 轉任하기로內定하엿기때문에 後繼內閣의 首班으로는 宇垣朝鮮總督 平沼樞府副議長의兩氏가 最有力視되게되엇다

【東京電話電通】近衛公에게 大命이 再降下하리라는 說은 昨夕에行하엿는데 今朝도 園公을 中心으로한 政局이 너무 柔弱을 極하고잇기때문에 近衛公에게 大命을 再降下할바게업스리라는 說이 依然히 行하고잇다 勿論 이는 何等 根據를 가진것이 아니오 近衛公自身은 그러할리 업스리라고 否認할터이나 大命再降下를 觀測하는 理由는 如左하다

近衛公의 大命拜辭는 健康이 이에 伴하지안는다는데 잇는바 公의 健康은 別로 조치 못하다할망정 못돌엇다 오히려 公의 健康은 常人以上이라고 한다 即 公의 大命을 拜辭한 理由는 他에 잇슴이 아닐가 政局에 關한 周圍의 情勢가 아직 公의뜻을 채우기에 足하지안키때문에 拜辭한것이 아닐가 그것이 참된 理由라면 周圍의 情勢가 이에 有利하게 收拾되면 公의뜻도 또한 動하지안흐리라고만 말할수업다 園公이 次善의策을 講究치안코 가만이 잇는것은 周圍의 情勢를 다시한번 注視하려는것이 아닐가 그래서 그 情勢를 다본다음에 될수잇스면 近衛公에게 大命再降下를 奏薦할것이 아닌가

平沼氏出馬疑問

宇垣、湯淺兩氏有力

近衛公拜辭心境披瀝

【東京電話同盟】大命을 拜辭한 近衛公은 五日午前十時五分 私邸에서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心境을 如左히 披瀝하엿다

大命을 拜辭한것은 一人으로 老軀도 도라보지안는 西園寺公에게 對해서는 참으로 未安하야 私情으로는 罪悚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拜辭한것은 勿論 내自身의 健康上의 理由인데 이時局에는 體力이 持續될 實力잇는 人物이 나서야할것이다 로보트等이 아니오 또 各方面에 人氣가 수잇는 人物이 必要하다 내가 이 內閣의 中心으로 活動할 조타는것만이 아니며 그自身 入方으로 好感을 준다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아모것도 아니한 때문이오 亦是責任잇는 立場에서게되면 그러케는 안될것이다 내가 拜辭하엿다고 重臣會議等도 열지안흘것이다 湯淺宮相等도 그候補者의 一人일것이다 平沼男은 어려운 여러가지 事情이 잇슬모양이다 宇垣氏도 一策이다 西園寺公은 此際에 某程度의 改革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모양이다 나에게 再次大命降下가 잇슬것가티 말하나 그런일은 업슬줄안다 五六人의適任者가 잇는모양이므로 그런일은 업슬것이다 또內大臣의交涉도업슬줄안다

宮內大臣後任

松平大使로決定

【東京電話同盟急報】宮內大臣 就任交涉을 바든 駐英大使 松平恒雄氏는五日 就任을 受諾키로 決定하야 午後二時半 參內하야 湯淺宮相에 그뜻을 回答하엿다

廣田外相

近衛、松平兩氏訪問

【東京電話電通】廣田外相은 五日午前八時 青山原宿의 私邸를 나와 永田町私邸에 近衛公을訪問하고 懇談後 松谷私邸에 松平大使를 訪問하고 여러가지 懇談後 途中에 東京俱樂部에 들러 同十時五十分 外務省에 登廳하엿다

海軍側에不滿聲

事前意見不聽取로

【東京電話同盟】海軍當局은 後繼內閣의 推薦에 關해서는 事前에 西園寺公으로부터 意見聽取가잇스리라고생각하고잇섯던바 그런 일이업시 後繼內閣首班의 奏薦을 行하엿다고 不滿의聲이 놉다

米國軍艦巡航

【華盛頓四日發電通】海軍省公表 米國海軍軍艦十六隻은 來五月下旬 발파라이소(智利)카야오(秘露)를 巡航하야 加州에 歸還할 豫定이다

무솔리니首相

東阿既得權確保

英艦隊撤退要求

和協試案과伊의態度

【羅馬四日發同盟】무솔리니首相은 來七日 閣議를 召集하야 和協促進에 關한 十三人委員會의 提言을 審議하야 伊太利政府로서의 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엇다 政府當局은 이든英外相이 十八人委員會와 十三人委員會에서 對伊制裁强化의 必要를 强調한데 對하야 甚히 不快의 念을抱하고 잇는것은 事實이나 十三人委員會의 提言 그것은 別로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最後通牒과 如한 意味가아니오 字句 또한 穩健協調的이므로 伊太利政府로서 即時 이것을 拒否함과 如한일은 업스리라고 보이므로 結局 伊太利政府의 方針은 左의 要旨를 基調로 決定될것으로보인다

一、全面的으로는 一九〇六年 에디오피아國에 關한 英佛伊三國條約規定事項의 範圍로서 滿足할터이나 새로 東阿戰局에 依하여 어든 既得權의 確保를 要求할것

一、消極的으로는 聯盟制裁案의 撤回와 英國軍艦의 地中海撤退를 要求할것

에디오피아皇帝

結局和協案受諾?

【아디스아베바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四日午後 十三人委員會의 戰鬪行爲即時停止和協促進에 關한 勸告電을 接受하야 即時 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께 回附하엿는데 皇帝는 熟慮하신後 巴里駐箚公使 마리암氏를 通하야 回答을 發하실터인데 從來條件을 受容할수잇는限 和協提案에는 欣然應諾하겟다는 旨를 屢屢 言明하고잇는 事實에 鑑하야 十三人委員會의 提案을 拒否하지는 안흐리라고 보인다

和協交涉提議에 에政府言明回避

【아디스아베바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十三人委員會의 和協交涉提議에 對해서는 一切言明을 回避하겟다 四日 如左히 말하엿다

新和協提議는 皇帝陛下만이 回答하실 權利가잇다 그런데 皇帝陛下는 目下 北部戰線에 御出動中이시므로 政府는 무엇이라고도 言明할수업다

山西赤化에直面 蔣氏에態度 目

【北平五日發同盟】山西의 共産軍에 對하야 閻錫山氏의 獨力으로는 지금 어떠케도하기어려운것이 明白하게 되고잇는데 蔣介石氏는 이에 對하야 如何한 方策을 할는지 注目의 焦點이 되어잇다 中央軍과 東北軍에依하야 山西의 反蔣은 北中에新情勢의 付權을 意味하고 山西의 危機增大와 함께 閻錫山氏의 態度決定도 終末에 가까워지고잇는데 北中의 唯一한 特殊政權冀察政權과 接境한 山西省의 共産軍의 活動은 北中에 前에업던 重大波紋의 源泉이되엇다

英海軍豫算案

七千萬磅의巨額

四日朝英政府發表

【倫敦四日發電通】一九三六、七年度 英國海軍豫算案은 四日朝 公表되엇는데 그總額은 六九、九三〇、〇〇〇磅으로 前年에 比하야 九、八八〇、〇〇〇磅의 增加이다 그主要費目은 如左하다

一、海軍航空機建造費 三、〇六〇、〇〇〇磅

一、海軍軍備擴充費 七、一一五、三〇〇磅

그리고 몬셀海相은 本豫算案公表에際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本豫算案中에는 三日 白書中에 提示된 國防缺陷除去에關한 追加費目은 包含되지안햇다 또今年度新建造計畫에關한 費目은 確定되지안햇다

八面鋒

◇ 組閣의 大命을 바든 近衛公 不健康을 理由로 大命을 拜辭。

◇ 近衛公 再降下說、平沼、宇垣說。非常時局을 擔當할者는 누구?

◇ 宮相에 松平大使로 決定、湯淺宮相을 內大臣으로 奏薦할 計畫?

◇ 藏相에 勝田、山本、馬場、結城說 有力。

◇ 非政黨人을 選擇하라는 計畫인듯。

◇ 京城府의 戶籍謄照 벌서 收容量의 倍數를 突破햇다고。

◇ 京城府는 귀지경만 入學難은 더키거나 무엇이 府當局의 利益?

◇ 春風을 따라 新刊號 販賣 子女를 가진이의 頭痛할 時季。

陸、海軍部內의 諸般情勢聽取

【東京電話同盟】西園寺公은 五日午前中 靜坐默考로 經過하엿는데 午後一時半에 至하야 大角海相을 招致하야 海軍部內의 時局에 對한 認識과 海軍部內의 情勢에 關하야 聽取하고 同二時半에는 川島陸相도 宮內省에 參內하야 西園寺公과 會見하고 事件의 經過와 部內諸情勢를 報告하엿슴으로 이를 聽取하고 다시 御下問에 奉答하기爲한 準備에 着手하엿다

岡田首相參內 西大將親補式에侍立

【東京電話同盟】岡田首相은 五日午後九時五十分 宮中에 參內하야 西義一大將의 敎育總監親補式에 侍立하고 同十時十分 退出하야 臨時官邸에 歸還하엿다

廣田外相 吉田大使와協議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松平駐英大使로부터 宮中入에 關하야 諒解를 求한바잇섯스므로 五日午前九時四十分 東京會館에서 吉田大使와 會見하고 善後策을協議하엿다

人事·集會

▲朴興植氏(和信連鎖店株式會社社長)新任人事次 四日來社
▲朱耀翰氏(同專務取締役)同上
▲李駿基氏(同常務取締役)同上
▲三輪邦太郞氏(三越京城支店長)新任人事次四日來社
▲加藤常美氏(同前支店長)本店으로榮轉하야 二十二日頃歸東豫定
▲李宇鎔氏(東一銀行金化支店支配人)新任人事次來社
▲徐廷弼氏(東一銀行本店支配人代理)同上
▲韓相億氏(辯護士)와 方漢復氏令孃熙玉孃과의 結婚式을 今五日午後一時 府民館에서 擧行

共産軍急迫으로 閻氏防共에必死

【天津四日發同盟】太原으로부터 某方面에 着電에 依하면 山西省에 들어온 共産軍은 總兵力二萬으로 主力은 石樓、離石臨州線에 또 最前線은 平遙에 肉迫하고잇고 毛澤東은 目下 後方三交鎭에 總指揮本部를 設하엿다 閻錫山氏는 山西全軍을 督勵하야 防共에 必死의 努力을 하고잇는데 三日 다시 王世國部隊도 討伐에 參加出動하엿다

佛上院外交委員會 佛蘇條約批准案可決

【巴里四日發電通】下院을 通過한 佛蘇相互援助條約批准案은 四日 上院에 廻付되어 外交委員會에서 表決한結果 贊成十九票 反對四票로서 可決하야 本會議에 上程하기로되엇다

朝滿間의三戰役

—戰後經營의十年間—

(九) 文一平

丙子後의 朝論에 가장重要한것은 國防의 充實과 國論의 統一에 잇섯다 그러나 언제든지 國論의 核心이오 또그의代表로 볼수잇는 當時朝論이 어떠햇느냐하면 江都陷落以前부터 主和斥和兩派로 갈라진 朝論은 江都陷落以後에도 依然히 軋轢을繼續하야 斥和派는 主和臣을 追罪하자고 떠드러냇다 主和臣의代表者는 仁祖의 帷幄에서 智謀를 움겨 兵禍를 느꾸는데 對하야 가장功勞가만흔 參判崔鳴吉이 그사람이니 그를 贊成하는이는 대개老成持重하는 大臣들이오 斥和臣의 代表者는 일즉 仁祖의 御前에서 今日의和는 이름은和이나 그實은 降이라고 講和그것을 根本的으로 痛論하던 大司諫 尹煌이 그사람이니 그에게 和應하는이는 흔이年少氣銳하고 談論風發하야 大義名分을 性命視하는 臺諫들이다 언제나 그러치만 實際利害를 打算하는 政治家보담도 大義名分을 主張하는 議論家가 人氣를 끄는법이다 더구나 李元翼 李廷龜 및張晩가튼 文武의元老들이 차례로 凋落함에 미처는 政界의急進派가 均衡을 일케되어 斥和論이 일층더 氣勢를올리게 되엇다 그러하야 朝野를 通하야 斥明排淸의 論이 거의國是가 되어잇서 斥和主和를 提倡하는이가 잇스면 그理由는 如何튼지 邪議로 排斥하게되엇스므로 崔鳴吉가튼이는 奸臣이라하야 그목을 버이자고 主張하는 무리가 만허진것도 또한 어찌할수 업는일이다 國論이 이러케 盲目的인 名分論으로 끌리어진以上 管仲諸葛의 人物이 잇드라도 到底히 그才를 展伸할수업다 이는丁卯以後 國論의 統一이 그릇된方向으로 나가기때문에 國家大事를 그릇치게 된것이다

지금 도리켜 江都盟約을 보건대비록 그內容이 屈辱하나마 대체로보아 戰敗한 朝鮮으론 그以上 더할수 업섯다 이를터면 金軍이 撤歸後에 시鴨綠江을넘지 못할것과 朝鮮이 金國과通和하되 明國에 背反하지 아니할것을 約定한과如한것은 얼마콤 彼의行動을 制限하고 我의權利를 擁護케하엿다 면저 우리에게 要求하던 割地撤兵과 또는靑明送質等의(假王弟를보냇스나) 苛酷한條件은 모다 撤回되고 우리의主張이 實現된것은 그만콤 外交談判에 一大成功으로 볼수 잇는바 戰爭에 喪失한것을 講和에서 獲得한셈이다 그러나 斥和派가 이盟을 反對하는 理由는 거의 千篇一律로 우리禮義東方이 父母邦의 仇敵인 後金과通好한것이 발서 大義에 犯햇다는 것이다 그럼으로區區한 和約의 內容如何는 애초 問題視하지안는바이다 어째든지 이江都盟約이 朝臣사이에 자욱케리하나를 도료한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을 利用하야 人心을煽動하는者가 생겨서 攻擊을 逞하야 前後에 反政府의行動을 取하게된 叛徒가 자꾸 일어나게 되엇슴은 그릇된國論의 影響이 얼마나 可恐한것을 보여주는 一例이다 우론 朝臣으로부터 아래론 人民에 이르기까지 일은바 上下가一致하야 銳意로 國防의充實을 圖하드라도 오히려 天下强敵을 制禦하기困難하려던 朝野를 通하야 다만尊明排淸의 口說로써 使金의使節을 꺼그려고 하엿스니 危險하기 짝이업다 참말 父母의 邦을 爲하야 犬羊의무리를 膺懲하려할진대 열마디 空論보담도 차라리한개의 살촉을 더準備하는것이 일을 조리는데는 必要하겟거늘 웨 仁祖九年辛未에 陳慰使鄭斗源이 明에서 가저온西洋火砲를 利用하지 안헛는가 利用은컨영 도리어 이것을 反對하엿다 이火砲는 斗源이스스로 說明한바어니와 그威力이 火繩銃보담 몃갑절이나압서는 自己火銃이나 我國鳥銃의 一放을 노흘사이에 四五放을 노흘수잇서서 그빠른것이 神과 갓다고 하엿다 仁祖께서 斗源의뜻이 邊事에잇는것을 嘉尙히녀기사 特히 一資를 더하엿더니 臺諫이 反對하기때문에 그加資를 還收하엿다 이르렷다 平日에 胡虜를 討滅하자고 氣焰을 吐하든 臺諫들이 이러한 精銳의 武器를 내버리자고 主張한것은 그 前後行動이 너무나 自相矛盾됨에 놀라지 안흘수 업다 만일 이때 이自鳴火砲를 잘利用하엿스면 이로부터 五個年後에 일어난 丙子胡亂에 가서는 큰 效力을 發揮하엿슬것인데 이것을 武器庫에 그대로 버려 두엇다가 淸軍의 紅衣砲에 혼이나고서야 비로소 後悔한들 어찌미칠손가 이것이 조그만 일가트나 決코尋常視할수 업는 우리네 心理的 缺陷의 顯著한 一反映인가한다 이러케 十年 동안을 國防에도 한것이 업시 虛送하다가 또다시 丙子胡亂에 알

血壓이高하면短命

상기、현기、두통、숨차고、귀고、견비통、변비、성욕감퇴

腦溢血中風의前兆

보기에 대단튼튼한분이 심장마비(心臟麻痺)뇌일혈(腦溢血)로하로밤새 도라가시고 혹은 반신불수의 중풍에걸이기쉬움으로 일가의 기둥일코 길가에헤매는가련한 가족이 대단히 만타

술담배를먹는분

일즉 화류병、심장병을 알든분、몸이 비대하고 음식을조화한분이 마흔살전후부터

두통、현기、상기、귀울고、견비、통나고、잠못자고 시력납부고、변비、손발떨이고、저리고、헤긋고、성욕감퇴

의증상을 자각하는때는 이미 심장마비뇌일혈중풍의 위험구역에 들어갓슴으로 다시나타나쪽더욱 더위험하여집니다 이원인은젊엇슬때술담배의독과화류병의독이혈액에서기여서

피가납부고

혈액순환이납분결과 마흔살전후부터 동맥경화、고혈압에걸여서 전기와가튼증상이 나타낫습니다。이런분들은뇌의결동과 걱정이근인이되야서드되여 무서운뇌일혈과중풍에걸입니다。

특히심장동맥의 경화는협심증을일으키고 최후에심장마비가돌발된다 이예방과치료에는뇌병약과혈압강하제를출분으로는잘낫지 안흠으로병원이인계하야근본적으로 치료하지안흐면안된다 파리잡는약으로 유명한 今津佛國理學博士가완성한

리끼신「이마즈」

는이런분들에게 약속하는신국제로서 지금까지전국각지의동병자가본제를먹고흉하한치료정을보여서 다깁버하고잇다。본제는변동을오중과대변으로배설식혀서전신의탁한혈액을정화하야서순환을조케하고 동맥경화의원인을어색으로 자연히혈압이내리고상기와가튼불쾌한증상이해소하야서 무서운뇌일혈중풍심장마비를미연에막는다。

변영과표준혈압

三五歲……	一二八미리전후
四〇歲……	一三〇〃
四五歲……	一三三〃
五〇歲……	一三五〃
五五歲……	一三八〃
六〇歲……	一四〇〃
六五歲……	一四三〃

우는남자의표준혈압이니녀자는이보다약一〇미리낫다 一五〇미리이상은변조 一七〇미리이상은위험

중풍은조위진다

불행이한번중풍에걸인분도 본제의복용과적당한섭생으로 협액중에엇는병독을 제해볼이면재발될걱정업고손발저린중반신불수허구든것이조위저서하로하로나어간다 늘뇌가납부고기분안나고、성욕감퇴한분、협압놉고뇌일혈의위험이잇는분、중풍으로약효가업서고롱하는분은리끼신을먹고서하로라도빨리전쾌되시라。大阪市大仁本町 今津化學硏究所에조선일보독자라고신입하면설명서와섭생법을그저보낸다

리끼신藥價 一百錠一圓五〇 五百錠三圓五〇、千錠六圓五〇、
全國藥店에서販賣함

중풍이낫은이가뿐!

(전약)소생은 옛날부터 대단히 건강하야 술과담배도 만히먹엇든바 돌연히 중풍에걸여서、하로밤새에 좌반신불수가되고、그후三年間 여러가지로 섭생을하엿스나 전혀효과업고、또 이상 히망도 끈어젓습니다 (중약) 작년가을에 자식이귀사『리끼신』을 사다가권하는고로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보앗더니 차차효과가나고、머리잡어단이는 중수도 불쾌한기분도 적어저서、말도자유로되게되고 손발도 잘듣이게되야 지금까지는 대소변까지도 다른사람손을 빌어야 하던것을 이제부터는 소생이 전부하게되얏슴은 모두귀사『리끼신』의덕택이라고 감사합니다

大阪市・高田熊太郎

明治チヨコレート

조코레-트

美와健康에의近代食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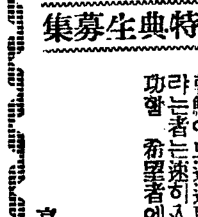
康美를獲得하기에는榮養食을擇取하야서、內面부터皮膚의色調를조케하는것이必要하다明治조코레-트야말노참으로適當한營養을新鮮滋潤한美分을주어서豐富한營養에依하야고흔肉德을듬고色澤을빗나게합니다

東京・京橋 明治製菓株式會社

財團法人 協成實業學校商工科生徒募集

▲商五十名、工二十名
▲出願三月二十九日迄
▲試驗三月三十、三十一日
▲京城府樂園洞二八二

朝鮮唯一 認可電醫 養成



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 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된다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優敏을受하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葉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永樂町岩永醫院側

京城府、吏員、雇員의 二割以上이恩給組

伏魔殿病原은老朽人物採用

擴張同時、刷新이急務

어들어가고잇는것은 언제가던지 새로운것출으는 인사행정 (人事行政)이다 경성부청의 직원수로 보면 소화구년이 오백륙십오명 이든것이 금년에는 륙백오십여 명으로 이년간에 약백명이나늘 엇고 압흐로 사월일일의대경성 으로 구역이확장된다면 천명내 외의 식구가될터인데 이럿케된다 면 부의행정재정은 전반적으로 커지고 복잡하여지는만큼인사행 정은 더욱일신하여야할것은 더 말할것도업다 그런데 현재부청의 각과를 돌아가며 직원을본다면 다른관청에서 목고목어서 퇴직 된 인물들이 수두룩이 잇는데 이것을 다시 자서히 알어보면 현재 부리원과 고원중에서 국 고로 나오는 은급(恩給)을 먹 고잇는것이 부리원에 약백명, 고원에 약오십명, 합계 일백오 십여명으로 직원전수효의 이할 이상이나 점령되엇스니 이것으 로보아도 경성부직원들 중에는 얼마나 늙어빠진인물들이 만히 모혀잇는가를 알수잇서서 어느 일면으로는 양로원(養老院)의감 도 업지안흔상태이다 이것은단 순히 경성부의 인사행정상문제 에 한한것이아니고 취직난이심 하고 실직자가만흔 전반사회의 중대문제에 속하는바로 신인의 진출을 위하여서도 이런진부한 인사행정은 쇄신의 필요가긴급 한바이다 그러고 경성부로서는 지난 소화사년 구월송정(松井) 부윤당시에 부의 재정과인사행 정쇄신의 의미로행정 정리를하 야오십명을 정리하엿섯는데그후 인사행정이 목고썩어서 온갓의 오사건을만히 내인만큼 대경성 실현을 압두고 대규모의 행정 정리는당연히잇서야 할것으로보 이고잇다

拙！府廳은準養老院？

宛然、退職者控室

財政難을無視한怪現象

高給恩給에高給이라는어矛盾

복마전(伏魔殿)의 일홈을 뒤집어쓰기까지 대소협잡사건을 변변비저내인 소위 대경성부의썩 전과 은급을 밧고잇는 경성부 직원들로보면 다른관청에서 십수년, 혹은근이십년식이나 잇슬대로잇다가 나와서 다시부청에 취직되엇슴인데 그들의 대부분은 인물의필요로 인해서 등용햇다는것이 아니고 거이전부가 상급관청의 고급관리들이 억지로 미러맥기인붙 그런데 그중에는 은급마 상당히 거액을 밧는것 현황 부직원중, 년봉천원이상의 은급을밧는것이 네명이고 오백원이상 밧는것이 십오륙명이나 되는형편이다 그러고 천원이상의은급을밧는사람들은 부청에와서도 칠급내지륙급봉을 밧고잇서 보통년액일천팔백원 내지이천원을 밧고도 가봉사할식이나 더밧고잇서결국 천원은급을밧는우에 또 년액이천여원 내지 근삼천원을 먹고잇는터이니 사회적으로나 국가재정상으로도 결코소홀히 볼수업는문제이다 이가치하여 국가로서 주는로후의 부양료를밧고잇스면서도 다시공공 단체의 급료를 밧고잇서 말하자면이중의 급료를먹는셈이다 그우에 인물조차 늙어서사무 능률에도 별반이러타 할점이업다면 경성부로서는 다시업는 손실일것이다

府의〃포켓트〃에서 退隱料만年萬餘圓

현재경성부에서 십이년 이상근속하고 퇴직한고원에게 지출하는 퇴은료(退隱料)(국고에서 지출하는은급과 꼭가튼것)만도 작년이 이만일천이백원에유족 부양료, 일천이백오십원 합계이만이천사백원인데 금년에는 전괴 퇴은료만도 이만팔천여원가량될 모양이다 이것은 경성부금고에서 년사회지불하는데 년년약일천원가량식 증가되고잇는형편으로 재정이 빈약한경성부로서 이것도 적지안흔 부담이되여잇다

水玉里에火災 一棟一戶全燒

【平壤】삼일오후여섯시오십분경 평양부내 수옥리(水玉里)이백이십일번지 오-도바이수선업 김병옥(金炳玉)의집에서 발화하여 일동일호를 전소하고 동일급시오십분에 진화햇는데 발화원인은 스토부의불이 휘발유에 인화된것으로 손해는 이천원이라

六日이驚蟄

〃깨오래잠을잣군〃 百虫이冬을깨는날

〔봄〕本格的으론〃흠인〃

▼…립춘(立春)우수(雨水)가 봄소식을 전해오면서 겨울의 폭군 추위에게 물러가라는전령(傳令)을 내린지도 벌서이순(旬)이 지낫다。그러나 어재까지도 맵쌀마진 추위는제세상을 빼앗기는것이 못맛당하다는드시 발악을해서 봄을 고대하든 얼마가지 생물의눈살을 찡흐리게하드니 래일로써 마지할 경칩(驚蟄)을 압두고 오늘부터는 숨이 팍죽어버리고 말엇다！

▼…『경칩에는 대동강(大同江)물이 풀린다』는것은 뱃날부터 전해나려오는 말이어니와립춘 우수가 봄의첫소식을 전하는 사자라면 경칩은 본격적으로 봄씨즌에 드러서는절후가될것이다 이날부터는 한겨울동안 땅속에 업드려파무첫든 온갓버레들이 동면(冬眠)에서 기지개를피고 눈을부시시뜨며 명랑한대지로의 진군준비를 하게될것이다。봄！이제부터는완전한봄이다

◇

東君이도라오니 萬物이 皆自樂을 草木昆虫들은 해해마다 回生커늘 사람은 어이연고로 不老不死 하는뇨 (朴孝寬)

天氣豫報

京城地方今夜개이고明日도개인다 京畿全圓도갓다

概況 七七六 미리의 低氣壓은 千島方面으로부터 滿洲朝鮮方面에 퍼지고 오호츠크海上에도 低氣壓이잇다 滿洲와 朝鮮은 大槪日氣가조타

今朝最低 零下八度六 今日正午 零下零度六

曾經司法係主任

無錢取食에暴行까지하고被檢

〃딴은시골警察署라나〃

그전날에는 경찰서 사법주임까지 지낸사람이 오늘날에는 무전취식과 폭행을하고 류치장으로 검속되얼이잇다 오일오전령시반경에 시내락원동(樂園洞)에 잇는 료리집 송죽원(松竹園)에서 시내 천대전화재보험회사원(千代田火災保險社員)림모(林某)가 그의친구 두사람과 일백삼십사원어치료리를 한푼도업시먹고는 더구나 자동차를 불러서히까리『차부 운전수 리재학(李載鶴)에게 폭행을 하다가 소관종로서원에게 발견되여 그서류치장에 검속되엿는데 그는 전자에 어떤시골 경찰서 사법주임까지 지낸사람으로 지난삼일밤부터 오일새벽까지에 세명의긔생을 불러노코 계속하야질탕하게 놀던것이라고한다

한다 이회재소동에 소방수조명석(曺明錫)외 두명은 중상을당햇다한다

延專卒業禮拜 八日梨專講堂에서

시외연히전문학교(延專)에서는오는팔일 상오열한시부터 시외리화녀자전문학교강당(梨專講堂)에서거행한다는데 졸업생은문과(文科)수물과(數物科)상과(商科)오십명이고 그날은경신학교장(徽新學校)『쿤쓰』씨의설교가잇스리라고하며 일반의방청을 환영한다고한다

엿都家二層이崩壞

아래서잠자든人夫二名壓死

今曉市外徽慶里에慘事

오늘오전두시 부외숭인면 회경리(徽慶里)엿도가 오창서(吳昌西)(三)의 집이층이 별안간큰소리와 함께문허저서 아래층에서 자고잇든 인부 권성칠(權聖七)과 김근진(金根鎭)(三○) 두명은 무참히도 갈려죽엇다한다 寫眞은 慘事現場

詐欺外交員檢擧

수일전에 시내본정서(本町署)에 사문서 위조행사(文書僞造行使)사기(詐欺)업무횡령(業務橫領)혐의로 인치당한 사나이가 잇는데 그는 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구번지 고병구(高炳九)방의 리용국(李容國)(三○)으로서 사기전과를 속여가지고 대정십일년 구월 시내모관청에취직하야 상당한지위에잇다가 소화십년오월 그곳을 그만두고 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 일본동산화재보험회사(日本動産火災保險會社)에 호적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야 외교원으로 채용된 그는 인천부외 장의리(仁川府外長意里)상백구십팔번지 방한주(方… 漢譚)외 구인의화재보험서청서류를위조 혹은 변조하야 이래 수백원의 보험료를 사취하야 소비하엿든것이 발각되엿는데 그로말미암아 보험가입자급 회사측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만흐리라고한다

거리의賭博軍檢擧

본적을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長湍郡長南面元堂里)에두고 일정한 주소업시 떠돌아 단기는 최(崔)…은『마루이찌』사기도박단에 참가하야 사일 오후네시경에 부외 신공덕리(新孔德里)한길에서 공덕리십칠번지 송재근(宋在根)방 안후현(安興鉉)등을 속히어 삼원오십전을 편취하엿다는데 전긔 안후현은 소관룡산서에 이사실을고발하야 공덕리이백삼십구번지부근에서 드듸어 체포되엿다한다

松波街道에强盜出現

棍棒바람에소까지다라나서

行人、돈일코소일코

삼일밤여덟시반 경기도광주군 중부면창곡리(廣州郡中部面倉谷里)오금옥(吳金玉)(四○)이 소를끌고 서울로부터 자긔집을 향하야 가든도중 독섬공동묘지압 송파(松波) 가도에 일으럿슬때에 상압에서 괴한한명이 가려막으며 곤봉가튼것을가지고 돈을내라고 위협한나용 그의주머니에서 두이원오전이 들어잇는 지갑을 빼서가지고 자취를감추어버린데 괴한이 돈을내라고 위협하는바람에 소가놀래여 어데로다려나서 소임자는 소를찻느라고 일시소동을일으켯섯다 소관경찰에서는 이등(伊藤)사법주임이 현장을 검정하는 일방 곳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을엄탐중이다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今日送局

永登浦署高等係에서檢擧

前後三個月만에取調段落

지난일월이십일 영등포서 고등계(永登浦署高等係)에서는 광주공산당협의회(廣州共産黨協議會)라는 비밀결사조직협의의 단서를 어더가지고 김학이 로량진(鷺梁津)불로(不老)양조장 지점서긔 리량재(李良載)(三○)를 검거하고 계속하야 경성(京城) 광주 인천(仁川)각방면에 형사대를보내어 불과수일동안에 관계자 십오명을 검거한후 좌등(佐藤)고등계주임의손으로 주야 엄중취조를하드니 일단락을지어 오일 오전일곱시 경전『뻐스』한대를 어더차고 석계환(石啓煥)(一九) 정영신(鄭榮信) 구허서(具虛書)등열명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이제 그내용을드르면 전기관계자들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 그들의거주지인 광주군중부면산성리(中部面山城里)에서 합법단체인 남한산로동공조회(南漢山勞動共助會)를 조직하고 민중운동을하야 비밀리에 공산주의사상을 선전하려는 기미가잇섯는데 그곳경찰의탄압이심함으로 약이년후에는 광주공동조합(廣州共働組合)으로 개명하엿스나 엄중한취체는 조금도변함이업스므로 재작년십이월에는 지금모사건으로 피신중인 경성허모(許某)와 상의한 결과 표면운동으로부터 지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야 비밀결사를 조직하엿다는것으로 그들은 좌익서적배여권을 구입회람 하는동시에 매월한번식 로동회관에모혀서 좌익사상의 선전『삐라』를 등사하야 자전거로 각방면동지들에게 배부하는일방 전위투사수명은경성 영등포 로량진 인천등각지공장에 잠입식혀 단체의 확대강화에주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운동을 하려든중에이와가리 발각검거된것이라한다

前衡平社委員長에게

衡平運動來歷審問

第二日은公開禁止에續開

【光州에서本社特派員 李鍾模發】 형평사사건 증인심문공판제(二)일은 오일오전열시반 광주지방법원에서열려 증인으로 출정한사람중 전형평사 중앙집행위원장 장지필(張志弼)씨부터심문을시작하엿는데 대정십이년경 남진주(晉州)에서 형평사를 창립한이래 그발전경로에대한 심문이잇섯다 방청석에는 오늘도 부산(釜山)진주(晉州)마산(馬山) 천안(天安)목포(木浦)긔타각처로부터온 형평사원으로 만원이가 엿다 장씨의 증언은 약한시간 량이나 진술햇는데 형평사조직 동기에 대하여『조선의 백정계급은 옛날엔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밧지못햇기때문에 자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것까지 도저히 될수업는 가련한 정상이잇는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세히 진술하엿다 이때방청인가운데 서도우름소리가 들렷다

平壤 高級絹織專門 廣林商會

大金가지고逃亡

삼일오후두시경에 시내 관수동(觀水洞)오십구번지의팔호 김영호(金永浩)(三○)의집 심부름꾼녀자리춘자(李春子)(二○)는 그주인의돈팔백십오원을 훔처가지고 어데로인지 도망하여버렷는데이 보고를들은 소관종로서에서는방금각서에수배하야 엄탐중이다

中東·中央·京商 五日에各各卒業式

부내중동(中東)학교와 경긔상업학교(京畿商業)에서는 오일오전열시부터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에서는 오일오전열시반부터 각각그학교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중동학교는칠십삼명、경긔상업학교는 팔십오명、중앙고보는 팔십오명의 졸업생을 내보냇다고한다

文盲退治努力

【寶城】전남보성군 웅치면강산리김한규(熊峙面江山里金漢奎)씨는 부근동리에 배움에굼주리고잇는 무산아동이 만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소화십년십일월일일부터 동리한두섭(韓斗燮)씨의 집에서 무산아동 사십여명을 소집하야 국어、산술、한글등에 대하야 매야세시간식 교수하여오는바 그성적이 매우량호함으로 면민일반의 칭송이만타

京保卒業生의밤 六日밤同校講堂에서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에서는 륙일 오후일곱시반에 동교대강당에서 금춘에 졸업하는졸업생삼십칠명을 위하야『졸업생의밤』을 열고 음악、유희、동극등으로 하로밤을 유쾌히 보내리라한다 그날밤에는 졸업생의 체육무용(體育舞踊)가상、동극、표정유희(表情遊戲)를 비롯하야 김정임(金貞任)리홍렬(李興烈)량씨의 피아노독주와 홍란파(洪蘭坡)씨의『바이올린』독주가잇스리라고한다

運動競技

打倒黑人運動 巴里에拳鬪新進

世界的 重量級拳鬪의 黑人『루이스』君의 出現으로 俄然 米國拳鬪界에서 擡頭한 白人의再起運動은 歐洲에로 傳播하야서 白人의重量級新鋭를 各方面으로 物色하고잇는바 最近 巴里에 一名의 候補者가 出現하엿다 이름은『샤르르·루·스스』라고 부르는 靑年인데 再昨年까지도 아마츄어로 活躍하엿스며 職業界로 轉向하야 十二次對戰에 全勝하는 好成績을 가지고 잇스며 그의主武器인『風車』라고부르는 左右『스윙』으로 猛襲하야 選手權『레이·듀코·빠르』를 擊退하엿다 아즉 젊은靑年으로 그爽快한 鬪法에는 巴里팬들을 熱狂케하고잇는데 벌서부터 注意한者들은『루이스』君의 好敵手이라고 試合豫想들을한다

올림픽氷上代表 歡迎·技會準備

第四回冬季올림픽 스케-트選手一行은 所期한바와가티『가르밋쉬·파르텐키르헨』으로부터 三隊에 나누어 各各歸國할豫定인데 日本스케-트競技聯盟에서는 代表選手歡迎會를 歸國後 二回에亘하야 東京、大阪或은 京都等地에서 열기로되여 且下그期日及『프로그람』協議中인바 近日中에 確定發表할터이라한다

女子氷上二種目追加

從來의 女子氷上스피-드選手權大會는 五百米와 千五百米二種目만을 實行하야왓스나『스톡호름』에서 行한 世界女子選手權大會에서 五百米、千米、三千米、五千米의 四種目을 行하엿슴에關聯되여 日本스케-트競技聯盟이 ISU에 加盟되것을 機會로ISU의 規定이 到着後協議하야 來年씨-슨부터 女子競技도 世界選手權大會와 가튼四種目으로 變更할모양이라한다

林풀에新施設

【伯林廿九日發同盟】올림픽水泳場은 競技施行上 가장有効한萬般施設에奔忙中인데 그中에서도 新機軸을 이루고잇는것은 水面下五尺의 깁히에다 水底看觀室을 만드는것이다 이看觀室은長二米 幅四十센치의 琉璃窓이 잇서 水底로부터 競技者의 擧動을 看觀할수잇도록 設計된것이다 水球競技의 水中反則은審判의 看觀가不徹底한 까닭으로 競技者는 故意의 水中反則이잇 이잇서 競技界의 스포팅가 고잇섯스나 이設備가잇스면 一目瞭然하게알수잇슴으로 從來의競技와는 一新된새로운氣分으로 關할수잇다 그리고 이水中室은 一個完成을보앗스나 다시二個를 增設할豫定이나 夜間에도 有効한 强力電燈을 裝設하기로되엿다 競技者에게『쯤』의 有難을 덜니서도 잘觀察할수잇도록

重量投世界新記錄

【倫敦廿九日發同盟】廿九日『마사츄세쓰州』立大學에서 擧行한 室內學生競技會에『로-레이·아-봐-』君은 三十五封度重量投에 一七米七六을 投擲하야 室內世界記錄을 更新하엿다 從來記錄은 지난廿二日에 擧行한AAA全米室內選手權에서『아이리쉬·드라이』君(코-드아이랜드)이 作成한 一七米七一七이다

永生高普設立者 徐氏十週年記念

함흥 영생고보(永生高普)에서는 오는 칠일오후한시부터 제이십이회(고보제사회)졸업식을거행하고 이어서 두시부터 그학교설립자 경교원인『스코트』씨의 근속십주년(勤續十週年)표창식을거행한다고한다

天一靈神丸
効能 食滯·吐瀉 霍亂·暑滯 消化不良 酒滯·胸滯 氣鬱·逆上 關格·頭痛 眩暈·腹痛
藥價 十錢 二十錢 五十錢 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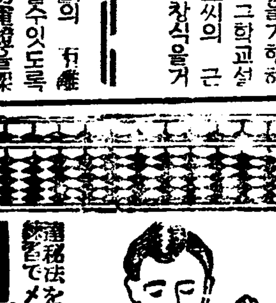
張道斌先生著 平壤誌 美洋裝 全一冊 定價三圓
平壤府慶上里二〇 平壤商工社 振替京城一三〇一二番

원고물감 (商報送呈)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〇八番 振替京城八四〇四番

山羊乳 明本山羊牧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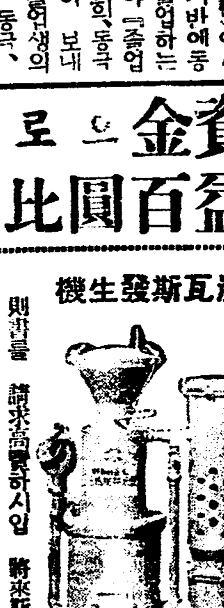
好職業 大阪天王寺區 福榮本舖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極意公開！



大景品 原理速算術 九九原理 極上等算盤

三百圓資金으로…… 月利益百圓比率確實
木炭瓦斯發生機
發動機使用諸彦의福音



合資會社 三浦製作所 朝鮮總發賣元 三成機械商會

玉屋時計師養成所生募集

性器强大器 早漏防止 男女理想的防毒產制要具 三實商會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 國一館 主 張箕燮 (顧客本位) 電話一九三六番

異次頓의死 【111】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공주의 음성은 아니엇다.

『누구시오?』

하고 이차돈은 가만히 안즌대로 물엇다.

『공주마마 뫼시는 나인이오. 지금 공주마마께오서 정신을 일으시옵고 손발이 식으시옵고 이를 사려무시옵고 그러하와서 중전마마께오서 공주궁에 납시와서, 일이 급하오니 시각 지체마시옵고 대사님께오서 공주께오신 방으로 드시랍시는 분부시오.』

『정신을 일으서?』

하고 이차돈이 못는다.

『예 정신을 일으시옵고』

하고 떨리는 소리로 나인이 대답한다.

『중전마마께옵서 납시고?』

『예. 시방 공주마마를 붓드시옵고 애통하시오.』

이차돈은 자리에서 일어낫다.

가사를 걸고 문을 열고 나인의 인도를 따라 공주 계신 궁으로 들어갓다. 끄불끄불 돌기도 하고 어두운, 넓은 뜰을 건너기도 하야 문을 들어가기 두번, 이차돈은 공주가 밤스중에 혼자, 남몰래, 이길을 걸어왓던것이 여간 일이 아니엿슴을 깨닷고 불현듯 측은한 생각이 낫다.

나인이 먼저 공주 방으로 들어가고, 이차돈은 게하에서 잠깐 기다리고 섯슬 때에 또한번 공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녓다. 그것은 아모뜻도 업시 정신도 업시 웨치는 소리엇다.

『들랍시오』

하고 두 나인이 초롱을 들고 나섯다.

이차돈은 문밧게서 한번 합장하야 부처의 신력(神力)이 지켜줍소서 하고 빌고는 나인이 인도하는대로 계상에 올라 마로에 올라 멧 방을지나 공주의 방에 들어갓다.

공주는 네활개를 뻣고 왕후의 무릅을 벼개로, 눈을 멀거니 뜨고 누어잇섯다.

『대사 이를 어찌하오?』

하고 왕후는 긴 소매로 눈물을 씻으면서,

『하나밧게 업는 딸을, 다시는 못볼 외딸을. 이것을 살려주오. 이것이 죽으면 이몸도 못살것을』

하고는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어깨를 흔들면서,

『악아, 악아. 이차돈서방이 왓다. 악아! 어쩌면 어려케 몰러도 모르느냐. 이러케 눈을 번히 뜨고도 모르느냐』

하고는 다시 이차돈을 보고,

『이것이 일념에 생각하는것이 이차돈, 그러케 병이 되어 정신업시 안즈면서도 부르는것이 이차돈이 이 딸을 살려주오』

하고는 소매로 공주의 입에서 흐르는 침을 닥는다.

이차돈은,

『황송하오』

하고 공주의 겻흐로 가까이 가서, 그 겻헤 무룹을 꿀고 안저서 공주의 파라케 질린 얼굴을 들여다보앗다. 분명히 가슴이 들먹들먹하는 양이 숨은 여전하엿다.

『악아, 이차돈서방이 여기 왓다. 네 겻헤 와 안젓다. 할말이 잇거든 하렴으나, 악아, 악아』

하고 공주를 흔들면서,

『어찌하야 이리도 오래 정신을 못 차리는고? 상감마마께서 알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꼬? 얼마나 슬퍼하실꼬? 잠깐 깨시면 생각하시는것이 이딸이신데』

하고는 또 공주의 눈을 들여다보신다.

이차돈도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옴지겨서 물끄럼이 공주의 나츨 바라보고 부처님의 크신 힘이 이 공주를 건지시기를 빌엇다.

방안은 잠잠하다.

이러하기 얼마 동안.

마츰내 공주의 뺨에는 붉은 긔운이 돌고 공주의 구더젓던 팔다리가 풀려서, 움지기기 시작하엿다.

공주의 눈이 움지기며 겻헤 안즌 이차돈을 보앗다. 공주는 제 눈을 의심하는드시 눈을더욱 크게 떠서 이차돈을 보앗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는 또 이차돈을 보고 그리고는 숨人결이 놉하젓다.

讀者社交室

◀本人은 某普通學校에 勤務中인 日本內地人女敎員이온데 理解잇는 朝鮮人家庭에 二、三、四年程度의 男女生徒家庭敎師를希望함 但詳細事는 電話로問議하여주시오 遞信電光八三六番、夜間電本三七六七番 淡原

◀慶州出生 鄭孝侖은二十年前 二十歲時에 無斷出家하야 于今까지 消息이 업는데 廣西省나 中國方面에서 或右人을 맛난 사람이 잇거든 右人의 母가現住하는 京城壽會洞九八番地로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아들찻는 어머니

◀日本집으로 溫突房하나와六疊나四疊의房하나잇스며 벽에는 水道와까스設備가잇는집을 파실분 혹시그러한집이 放賣하는것을 아시는분 住所와집의平面設計圖를그리어 곳通知하십쇼 社稷洞 一二二 周晋會

◀本밴드는七年前에創立된바요사이에團員을募集케되엿사오니하모니카의 趣味를가지신분은左記場所로來談或은書信으로問議하여주시기바랍니다 府內益善洞四六 알파하모니카밴드 金生峰

◀京城에잇는大昌學院住所와學院長인崔昌鉉씨의住所를아시는분이게시면 이欄을通하야알려주시기바랍니다 (○◇生)

◀키타ー中古品(新品價三十五圓)모다 노키二[illegible]에 讓渡코저하오니 [illegible] 하시가 [illegible]고 左記로照會하시고 [illegible] 確하고 音色明快强大(中古品으로서차會수잇는音色) 咸南退潮市場通二六六 尹炳奎

◀小生은十年前부터 毛筆鉛筆書를專攻으로 練習하얏는대 今日에와서는 押畵方面에도 自信이잇슴이다 押畵方面으로 就職을求하고십흔대 就職할자리좀仔細히下敎하야주십시요 8生

◀金基泰先生 罪悚千萬이오나 지금社交室을利用하야 말씀읍니다 달음아니고 先生의不注意로因하야 先生의住所를잇고 알方法이업서消息도 옴니지못하고잇습니다 左記로住所를알녀주시면 不幸中多幸이겟습니다 咸興府軍營通民書閣書店으로 東京中野 金仁鏞

◀京城謙洞居하는 朴振來君은 有數한 漢文家로 前曾成社活版所事務에 從事하다가 安國洞에서 柴炭營業하얏는데 本人이 亦是 落鄕後에 何處로 轉落하얏는지 七八年來에 問聞無處하오니 朴氏는 勿論이오 親知人이 有하시거든 其存得을 本人에게 通知하시면 感謝하겟나이다 朴君이 何處에 居住하신다면 不遠千里하고 相逢코자 하나이다 朴君은 大成學校 出身이올시다 陵谷驛前內里 張孝根

◀社交室을通해서 한가지못사오며 어느분이나아시는대로아르켜주십시요 언제인가어느레코ー드회사에서『쌍쌍화』라는노래를吹込햇는대 至今은부르지못함니가 當局에압수당햇다하온대 事實인지速히알려주시면대단히감사하겟습니다 新幕 讀者

◀普校卒業 今年二十二歲에身體强健 愛嬌가有한 靑年입니다 食堂 又는 카페의호루뽀이 又는국『見習』으로 採用하여주시요 大端이未安하오나 紙上으로通知하여주시요 (地方出) 黃海道海州郡海州邑中町一二五 李昌蓮

◀小生은금년二十四歲이온데요 黃海道海州에서 昨年十一月頃에 生活苦難으로因하여 工業都市平壤으로 食口七名을다리고 移舍를와습니다 아직就職을못하여서 근심으로금년은 래년에보지못한 酷寒이외다 굶머죽을지경이외다 小生은外交와 配達人또는多年間경험이有하오니 이불상한사람就職하나 求하여주옵기를엽데며바라나이다 平壤府西城里七十二番地ノ十一號 鄭濟鎬

◀京城中林洞藝術社에서發行하는藝術第四號를 左記住所로보내주시면 四海公論 二月號와 文學一月號를 보내드리겟습니다? 義州邑東部洞一三七番地 朴毅善

美と魅力の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ー랑)

● 美容의第一條件은魅力에잇습니다아무리 어엽분化粧이라도魅力이업스면零입니다

탕고도랑의化粧美에는 高尙한데홈딱쓸니는魅力이잇습니다

白粉과크림과化粧水의세가지作用을同時에단한가지로되는唯一한스파ー드綜合化粧料

百化店、藥局、化粧品店에잇슴

얼골빗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되는 タンゴドーラン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연분에는……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早曉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三十錢 地方送料加算

新製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消化素 口香料 仁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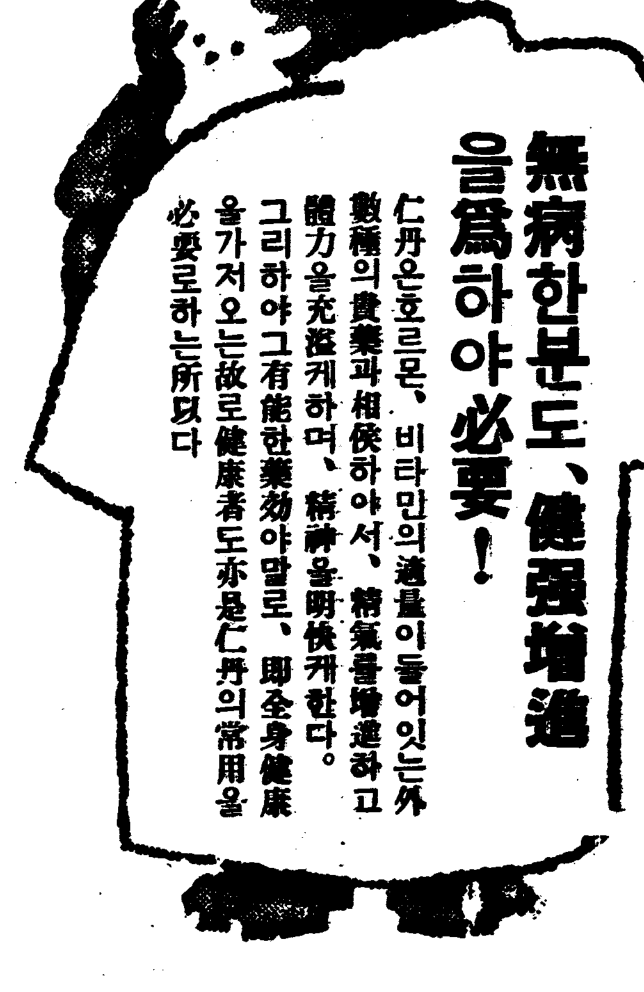
仁丹의本格的藥効를恒常活用식히시라!

胃腸

胃腸납분분에 仁丹은、食後에꼭잡수서야할常備藥

頭痛

頭痛、眩氣、氣鬱할時、仁丹은머리를明朗케하여주는日常要藥



胃腸과頭痛알는분

이宿症을곳치기에는?

철다철다고하는동안에발서한송이두송이梅花가피기始作하야서未久에陽春三月이슴어들것을입니다……꼿피고새울면언제까지나病으로憂鬱하게갓처잇는것도人生의虛無한것이안닙니가?

● 街頭의考現學으로

섬섬거리를것는분들의 얼골빗을 차저보면林檎과가티潑剌한얼골의色澤이 健康한듯한분들은百人中에겨우六人쯤의比로서 남어지九十四人까지는 男子는勿論아무리곱게꾸미고잇는 女子라도亦是不健康한顏色이나려나보입니다 그러한분들은單只 不健康이라는그대로特히病이라고내노코말할수야업지만醫師의說明하는바에依하면그大部分의분은 납분분이라고말합니다。

日本에는胃腸이

日本人은食物의 關係로만흔분은 胃擴張이라고、또運動關係로 胃酸過多와 消化不良의人이만습니다。그中에도언제나 食事를하고난뒤에곳신물과산물이올나오고가슴쓰리고、속이끌끌하고도 배가끔하지는것을늣김이나는분은 서둘용한

胃腸의宿症이

잇슴으로、더지내면短氣해지고、榮養이 不足하고、顏色이납부고元氣가업서지고 몸도衰瘦하고漸漸몸이 衰弱하여가는一方입니다 萬一이러한容態를 自覺하면 꼭常備藥으로서『仁丹』을 食後마다 꼭十粒式當分間계속하야 쓰십을 願합니다。仁丹은單只抑壓과淸快케하는胃腸藥이안이라、根本的으로消化機能을調整하는藥効를가지고잇슴으로계속하야서服用하고잇는동안에몸의機能은눈에보일만큼顯著하여저서

特히배人속이

누구나다알수가잇게됩니다。『얼마동안仁丹을 規則的으로 계속服用하엿더니 永年間의 胃腸病이나엇다』고깁버하는분이만허

仁丹은、人間活動의元基 호르몬(最高貴의麝香호르몬과『가라나』의植物性호르몬과)人體의組織榮養의要素비타민의適量을含有함

잇는反面에仁丹을먹고매싸서나아가던中에貴藥東藥中에서 專門이하야아주까지 胸腹을맛보고잇다고하는말을때때로 듯고잇는바이것은참으로可惜한일입니다참으로이胃腸을 는三十餘年來幾十萬人의體驗을하고잇는數重한効果에充分히信賴하도록推獎합니다

그럼으로그다음에만흔 病狀은頭痛이라하고해서 平常時부터머리를잘알코조곰무엇을 生覺하고오래이약을하고잇스면즉머리속이압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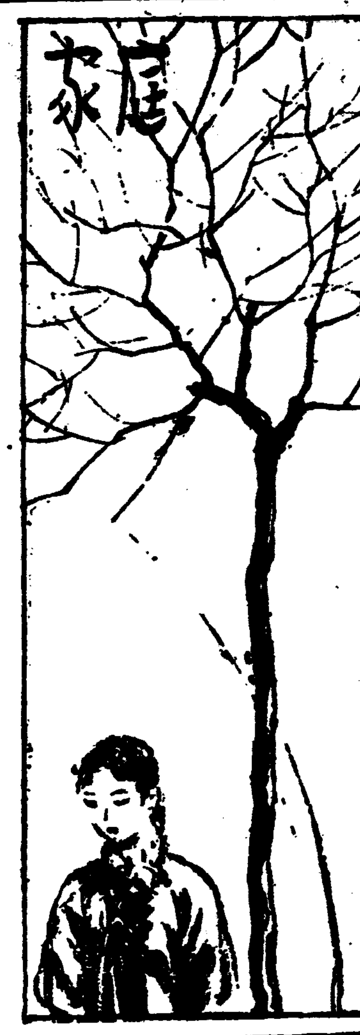
이저버리기쉽고

生覺이 散漫하여저서 集中이잘안되는분이 意外에도世間에는 만습니다 이러한분에는어느분에게나『仁丹』을 勤하고십습니다『頭痛時에』

仁丹은 永年間常識이면서도자칫잘못하면實行하지안는이가업다고할수도업슴으로 仁丹은오즉頭痛을근치게하야서氣分을 明朗하게할뿐만안이라 頭腦를明晰케하고記憶力을增進케함으로 特히目前에試驗을준學生諸君에는 참으로一時라도업서서는안될受驗必勝保證의마스코트입니다

定價

赤小粒 廿錢・卅錢・五十錢・一圓
赤大粒 廿五錢・五十錢・一圓
銀粒 二十錢・三十錢・五十錢
寶香 五十錢
ローズ 十錢・三十錢



알마즌 학비와 미들만한 주인집

ㅣ자녀를서울보내실부형들께ㅣ 이점을생각해봅시요

신학긔가 되니까 시골보통학교의 졸업생들은 고등보통학교를차저 서울로 또는 가근처의 딴시골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보내시는 부모도 한편 대견하고 떠나는 생도들도 한편 기뻐서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아지 못하도록 기뿌고 질거운 길이올씨다。그러나 부모슬하에서 곱게곱게 크든 어린사람들이 객지에 홀로나서 엇지 될줄 압니까? 아모리 선생님이 게시기로니 선생님이 부모가티 늘 다리고 잇서 타이르고 가르칠수야 잇습니까? 더구나 녀자는 남자와도 달러서 큰 걱정입니다。걱정만으로는 소용업는 일, 애초부터 주의하야 주시고 항상 경계해 두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인하는 집이 문제입니다。주인이 납브거나 또는그집에 납븐동무들이 드나들어서는 아주 심키 쉽습니다。그러니까 첫재로 긔숙사가 조코 둘재로 숙내용을 잘 아는집이 조습니다。이것도저것도 다 불가능한경우에는 그주인할 집을 친히 와서 멧칠동안 두고보고서 아모탈이 업슬상 십거든 아조 주인집으로 정해 주시는것이 조습니다。그다음으로는 친히사괴는 동무가 문제입니다。녜말에 친구로보아서 그사람을 안다고 하는것가치어른도 친구를 잘못 사괴다가는 아조 못된데로 흘러나아가게 됩니다。그러니까 위선 동향에서 가치 올라온 동무중 낫븐 아히가잇거든 교유를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그러고 또 동교생중에 누구누구하고 친히 다니나 그 아히들 어떤가 그곳의친척이나 아는사람을 통하야 조사해가지 지도해야 할것입니다

×

제일 문제되는 학비입니다。돈이 모자라도 곤란을 당하지오만은 돈이 넉넉해도 공연한 용돈이 나가고 그래서 차츰차츰 못된데로 빠지게 됩니다。그러니까얼마를 정밀히 따저서 한달에 일정한 액수를 정해노코 또박또박 보내주어야합니다。설사 이런핑게저런핑게를하고 더 청구하더라도 그것이 핑계가 아니란것을 명백히 알기전 더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그러고 보내는날짜도 문제입니다。일러서도 못쓰고 느저서도 못쓰고 꼭 정한날로 보내주서야 합니다。학비가 느지면 늣는그만큼손해도 나려니와 동무의돈을선대해 쓴다는등 옷가지를전당질한다는등 폐해가 적지안습니다。이왕 말이지만은 다른경우에라도 동무의돈을 꿔어쓰거나 옷가지를 전당질을하거나 하는일이업도록 단단히 단속을해두시는것이 조습니다。

×

그외에도 가지는 물건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에 사치한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요 흔히 남들이 다 그러케 한다는바람에 속아서 멀리 안저서모르시고 사주시는수가 잇스나 남들이 다 하는것이라고 꼭 해야만 될것도아닙니다 또 방학때 되거든곳 집으로 오도록 하십시요。흔히 동무의 집을 차저감네하고 딴시골로도 가고공부를 더합네하고 잇서예납아 잇스려고니 한다만은그러다 빠꾸로 꿰지는수도비일비재입니다。

사람파리

꼿꼿하게선 수십칭집벽을 파리처럼 부터서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가는사나이가 지금서반아의서울『마드리드』에나타낫습니다 이 남자는『헬만·케라ー』라는 이십륙세의독일사람인데 륙년전 미국『뉴ー욕』에 사럿슬때 이웃집에 불이나서 맨꼭대기칭에잇는 아이하나가 타죽게생긴것을 벽을타고 올라가서 구조한일이 잇습니다 그런데이때부터 그는 자기뻔뻔한벽을 기오르는천재가잇는 것을알게되어 이길로 아조나서버린것이랍니다 그는광고주(廣告主)들에게 돈을바더먹으면서 구라파일대를만유하고잇답니다 지난번『파리ー』에가서는 자기와가튼재조를가진녀자하나를맛나 부부가되엇스며 두내외는가치함께곱고놉흔『에펠』탑을 기어올라 파리ー사람들을놀나게한일까지잇다합니다

보제『칼슘』은 주부가맨듭시요

약으로살필요는업는것

『칼슘』이 영양제에 든다는것은 우리네가 상식적으로 다아는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인네나어린애들에게『칼슘』제를 먹이고또는『칼슘』주사까지 맛게되는것이아닙니까 그런데『칼슘』이란별것이아니라 일ㅅ종의 석회질(石灰質)인데말하자면 조개껍질、그중에서도 특히 굴껍질、계란껍질、생선 뼈다구、그외의 동물의 뼈에뗘만히 포함되어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약방에서파는『칼슘』제는 대개가 다이런것을 원료로해서 정제해낸것에지나지 안습니다

우리네의 몸에『칼슘』이 필요한것이 사실인바에는 구태여『칼슘』을 약으로알고 사먹을것이아니라 동물의 뼈다구를 만히만먹으면 문제업습니다 힘드는일도아니요 돈드는일도아입니다다가령『생선』한다면 생선의 살만먹을것이아니라 뼈다구까지먹는것이『칼슘』분을섭취하는데가장조흔방법이될것입니다 먹기에거북스럽기야하겟지만생선머리로막으로부터꼬리까지뎔수잇는대로뼈까지다잡수실생각을하시고저까랑을틉시요생선뼈중에는너무가느다든지딱딱하고뾰족해서 위험스러운것이 더러잇습니다다만 딱딱집어서 넘기만한 연한생선의뼈도만히잇습니다—이상에 말슴한것은 보통식사하실때에 유의하실점이고 집안에서 손쉽게만들수잇는 『칼슘』제를 말슴하겟습니다

자디잔물고기들(송사리 붕어새기니하는것들)을 이것저것 할템이사서는 물을붓고 삶읍시요 그런뒤에 건데기를 건저말려가지고 가루를맨듭니다 그가루를 가는체에다걸러서 밥에뿌려먹기도하고 체에남은되장찌개나 국에타먹습니다 그러면맛도 팬찬을뿐더러『칼슘』을 손쉽게 우리몸에 보급할수잇는것입니다 『칼슘』은 한창자라는 어린애들과 애밴부인네에게 대단히조흔 영양제입니다 그뿐아니라 보통 건강한사람에게도 감금『칼슘』의 보족이 생기니까 먼저말한 방법으로 한다면『칼슘』보충의 문제는 주부의솜씨하나로 해결될수잇습니다 또 학교다니는애기들 변또밥에 그가루를 뿌려주시면 그효과도효과려니와 김이서려 물이뚝뚝떠러지는 폐단이 업게되어 밥이 고실고실해서 먹기에도 조케됩니다

가차이서보는눈

너무부끄러워해서 타진하기도거부해

덩다라낫붉히는醫師先生

記者 선생은 의사노릇을 오래하섯스니까 녀성—중에도사춘긔에 드러서는 처녀들을만히 대해보셧슬줄아는데요

朴 십삼년이나 여기잇는동안에 남자나 녀자나간에 만히대한것만은 사실이오나 별반 젊은녀자에게 대한흥미를 가지지못햇든탓도 잇겟지만 요새와서 더구나 시대가 이상해서 결혼한이나 처녀나 모다 머리를 트러올니기때문에 우리가티 내과(內科)만보는사람은 잘몰르라요

記者 그래도 처녀—더구나 사춘긔에 달한처녀는 좀다른점이 업지안흘가요?

朴 하기야 그러치요 원래 녀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붓그러워한다고는하지만 열오륙세가량되면 전에업시 공연히 붓그러워하는 폐단이 잇는것만은사실입니다。혹 진찰할때에도볼것가트면 처녀는 젓가슴을 만지운다든가 가슴아래를 뵈우는때는 아주붓그러워서 엇절줄모르다말슴이얘요

記者 사춘긔에 드러서는 녀성들에겐 어떠한 병이 생기게됩니까?

朴 주로 공상하다가 생기는 신경쇠약이고 그외에 생리적으로 이러나는 자각몸의 변동을 몰나서 병원에 오는일이 만습니다

記者 대개 어떤종류의것입니까?

朴 흔이 월경하기전 한열(寒熱)을 두고 목에『갑상선』이붓는일이 만흔데도 이것이 무슨는병이나 아닌가해서 오는일도잇고 젓가슴에 알맹이 생겻다고오는일도잇고 흔혼 남자에유혹을바더서 엇저다가 수태하게되것을 모르고 오는일도잇습니다。결국 말하자면 부모들이 이방면에 대한지식을 딸에게 가르켜줄한정도가 못되는데서 생기는폐단이겟지요

記者 이시긔에잇는 간호부들은 어떠합니까?

朴 역시붓그러워하지요 의사나 남자환자를 붓그러워서 엇절줄모르는일이 만치요

記者 그래폐단으로 일에지장이 생기는때도 잇겟지요?

朴 만치요 첫재 일에 등한하니까요、팬니 먼산을 멍하니 처다보고 한참식 서잇는일이 만흔까닭에 실수를 식히기도 퍽 거북합니다。(大學病院 伊藤內科研究室 朴秉來氏 談)

숫절약하는데 輕石을쓴다

—사분지일은경제되는셈—

방에 불을때고 지내다고 숫쓸일이 별로업느냐하면 그러것도아닙니다 밧갓양반은잘모르시겟지만바느질할때의 인두ㅅ불, 양을 다릴경우라든지 다리질을할때 쓰는불이란 숫불이아니고 될수잇습니까 그나 그뿐인가요 감작이 음식을 맨드러야할경우 이런때 필요한것이 첫재 숫입니다 그럼으로 숫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것업시 사시장철집안에 다소는 잇서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숫은 푼어치로사쓰는것보다 섬으로 사쓰는것이 경제가되겟지요 그러나 섬으로사쓴다할지라도 용정업시쓰면 헤퍼지다를입니다 그럼으로 다른소비품도 다그러치만 숫도경제해서쓰는법을아라두실필요가잇지안켓서요

—숫불을 알마치우신뒤에 거기에다 경석(輕石)이란돌을 말하자면 돌맹이의 질(質)이 치밀하지안코 겁분한돌로 솜돌(海綿石)가튼것입니다 이런돌을 숫의 오분지일가량 잘게깨트려넛습니다 그러면 숫불이 그돌로 옴겨부터 벌거케됩니다 그래서는 해종일불이 부러잇게되니까 숫이퍽 경제될뿐더러 재티가 나른다든지 하는일이적은 즉 방이더러워지지안습니다

큰일치를때 지짐질을 여러날하게된다든지 또는 집안에 어린애기가잇서서 빨래가밀려 솜옷이며 기저귀가튼것을 빨라 미처 말리랩수업는경우에 숫불을 이런식으로 피워두고 말리면 한결편하실것아닙니까 그리고 콩을삽는다든지 다시마를 삽는다든지 생선을굽거나 양을고을때와가튼경우에 이식으로 숫을쓰면 숫이적어도 사분지일은 경제가됩니다 사분일이 얼맙니까 숫한섬에 일원을한다면 칠십오전에 숫한섬쓰는폭이니 적잔은돈이지요

童話 외다리병정 (二)

崔秉和

二

그이튼날 아츰이되엿습니다。도련님이 아장아장거려오드니 그외다리병정을 발틀창에 올려노앗습니다。그러자 그것은 검언귀신의 작란인지 그러치안으면 바람의탓인지 그유리창이 별안간활작열리엿습니다。그바람에 외다리병정은 툭씨러지드니 그상층 유리창에서아래사람다니는 돌바닥에가 각로 떠러젓습니다。

빙글빙글 탁ー。

『아구 죽겟다。』

병정이메인 총대끄튼 돌바닥틈에가 꼭끼엿습니다。도련님은『어구머니』하드니 누나와함께 행길로나왓습니다。두사람은 외다리병정을 열심히 차젓습니다。병정은 두사람의 바로 발압헤떠러저서 두사람은 잘못하면 그병정을 밟게되엿습니다。두사람은 그여히 병정을 찻지 못하엿습니다。

외다리병정은 『여보세요 여기잇습니다。여기요』하고 우는소리로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은 병정이 행길에서 울고잇스면 남보기에 창피함으로 엇지도 참을라고입쌀을 깨므럿습니다。그때 별안간 비가우두둑 오기시작하엿습니다。얼마안되여서 비는 몹시 쏘다젓습니다。

그비가 겨우 꼿치자 동리의 사내아해가 둘이 지나갓습니다。『애、저기 병정이잇다。저것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자』하고 두사람은 즉시 신문지를 접어서 조고마한 조희배를 맨들엇습니다。

행길엽 개울에는 진흙 물이 펑펑 흘러 가고 잇섯습니다。두아해는 조히배에다가 외다리병정을 태우고 그것을 개울에 떼워버리엿습니다。그리고두아해는 손벽을치면서 와와하고 따라갓습니다。

물은 기운차게 흘러갓습니다

때때 큰물결이 출렁거리엿습니다。그때마다 배는 빙글빙글돌면서 이제 업퍼질듯하엿습니다 외다리병정은 깜작놀나서 벌벌떨고 잇섯습니다。그러나 병정이므로 꼭참고 무섭다는것은 얼굴빗에도 내지안코 총을메고 한곳만 바라보앗습니다。

그러는동안에 배는 별안간 솟굴로드러갓습니다。그곳은 전혀 상자속에 드러잇는때와가티 캄캄하엿습니다。배는 그캄캄한 속을 물결에싸여서 기운차게 흘러갓습니다。

『대체 어데로 흘러 가는것인가』하고 외다리병정은 비틀비틀하면서 타고잇섯습니다。

『이것은 모다 그식검언귀신의 심술때문이다。참말 그놈은 지독한놈이다。그중주는녀자와 둘이서 타고간다면 이어둠이두갑절 어둡드라도 태연 하겟지만

아ー위험하다。ーー아구 하마트면 어퍼질번하얏구나』외다리병정은 새파라케 질려가지고옹주려드럿습니다。그러자 별안간 그땅미테 개골창에 살고잇는쥐가

『야、병정 기다려라』하고 큰소리로 말하엿습니다。

『이놈 통행권을보자。이놈아통행권을 보자니간』그러나 외다리병정은 잣잣코 총대만 잡고 잇섯습니다。

배는 쉬지안코 막 다라낫습니다。그러니간 쥐는 성이잔득 나서 쫏차왓습니다。

『여보게 그놈을 붓잡아주게 통행세(稅)도 내지안코 도망을가네그려。통행권도업시 지나가다니 그런법이잇나』쥐는 이러케 말하면서 배엽흘지나가는 나무쪽과 집풀떼이에게 붓잡아주길부탁하엿습니다。

이러는동안에 물은 점점 급히흘러가기시작하엿습니다 배는 눈이 핑핑내둘니만치 빠르게다러낫습니다。그러자 어느듯 저쪽편이 환해저왓습니다。외다리병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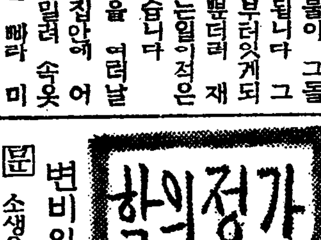
『아! 인젠됏다。밝은세상에나왓스니』하고 조와하는데 펑! 펑!하고 귀가찌저질만한 큰소리가 들려왓습니다。그것은 개골창물이 절벽아래로 떠러지는 소리엿습니다。

물은 갑작이 큰폭포가되여서 꼰두백이로 떠러젓습니다。병정이 탄배는 것잡을새업시 폭포물에 휘싸혀 거구로 떠러젓습니다。병정은 물에홈박저저가지고 빙글빙글도는 물결에 휩쓸려 맴을돌고잇섯습니다。

네애기를 단번에순산

한배에 네아이가조르르출산되엇습니다—영국의『쎈트네오즈』란 조그만한곱에서는 이번이 초산(初產)인데도 네아이를 안산햇습니다 사진은 애기네들이 출산후백인것으로 왼쪽에 마스크를하고잇는녀자가 바로어머니인『마일스』녀사입니다 년전 카나다에서 다섯애를 한꺼분에 낫분이잇섯지요 그와대항해서 그기록을 깨트릴작정은 안해게지요만 엇재든 흥미잇는 사실입니다

작난중에 못된작난은
불작난。석냥을 가지
고 놀다가 불이나면
엇절래。불이나면 집
이 타버리고 사람이
타죽는것을너도알지。
다시는 그러지마라。
말안드르면 어머니한
테 죽도록 맛는다。
(글쓴사람유양순)



변비와탈홍

問 소생은약삼사년전부터 소화불량과변비증으로 크게고통하옵더니 약일년전 부터는탈홍(脫肛)하며 대변시 출혈까지하게되오니 변병과 치료법을 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청단 유생)

答 탈홍과 변비는 대개 가티 발생되기 쉬운 병입니다。대변을 순하게 보도록하며 좀 혈이 심하면 수술을 하여야될것입니다 대개 경과로 보아 생각하면 습관성변비(習慣性便秘)인것갓습니다 아츰일즉 이러나 먹는 랭수나 혹은 찬 우유를 한컵식 마시여보시요 음식은 채소를 주장해자시게하십시요 대변잘보게 하는 약은 대황(大黃)『라키사도ー르』『구로사ー로』등이 잇스나 사람에 의하야 잘듯는 약도 잇스나 그러치 안한것도 잇스니 여러가지를 자서보게하십시요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윗병으로고생

問 이십이세 남자인대 지금으로부터사오년전에 위산과다증을치료하야 그후무사하다가 일년전부터는 다시 소화불량증이생이며 식후에는배가부르고 트림이나며 배가끌코 배를만즈면 군대군대들듭니다 위장병치료코저 경성까지갓스나 와치치못하얏습니다 위산과다(위경련?)으로 위가조곰허럿다합니다 치료법을가라처주십시요 전긔흔든태양광선치료는 어떳습니까 (忠南 苦痛生)

答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으로생각합니다 십이지장궤양(十二指腸潰瘍)이것갓습니다 이것은 발통과창자의새에잇는 장입니다 음식은유하고 자극성잇는것은해로우며 염분(鹽分)도해롭습니다 음식은죽의치안코 복약으로만고치라면될수업습니다 좌고처방을 연복하고 심할때식후식전하로여서인복약케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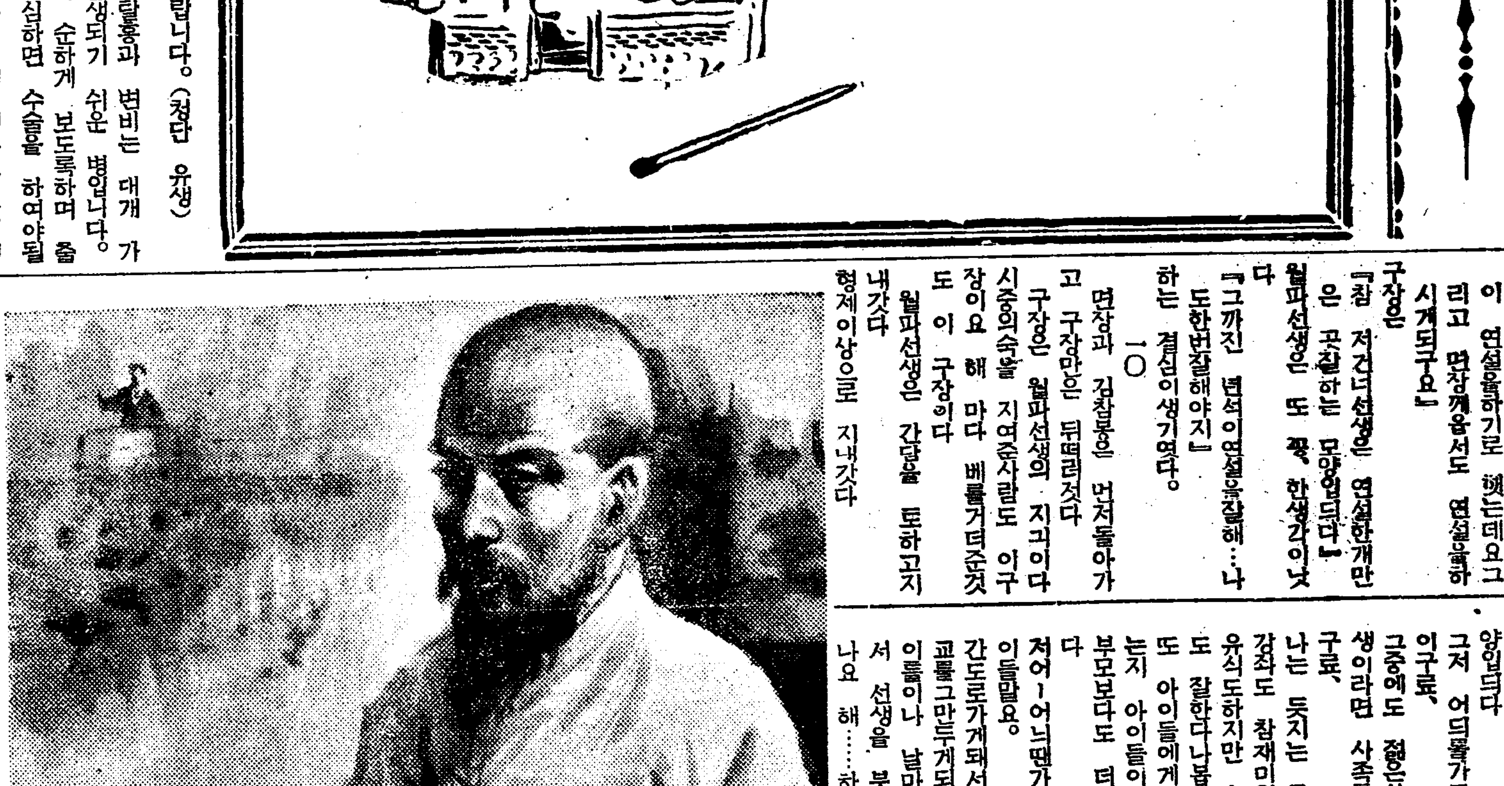
炭酸카르시움 一五、〇
炭酸마크네시아 三〇、〇
冷酸化炭酸蒼鉛 八、〇
右每日三回(六回)食前後合第一茶匙式服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大好評 短時日에빗나는 料理솜씨

오는十日부터五日間 第二回中國料理講習會 (午後二時부터同四時半까지)
講師는斯界의權威 鄭順媛女史
◇會費 壹圓 (但每日드는材料實費는各者가分擔해야합니다)
◇場所 西大門町一丁目三三京城女子基督靑年會館 (아주개전차정류장바로압입니다)
◇申請期間 三月九日까지主催側으로即時申請하십시요
主催 女子基督靑年會・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月波先生 【十一】

宋影 作 金熊超 畫



『참、그러시면 그날밤에 선생님께서도 공부문제를 가지시고 연설이나 한번하시지요、저건너학교 오늘저녁에 박선생이 연설을하기로 햇는데요그리고 면장께옵서도 연설을하시게되구요』

구장은

『참 저건너선생은 연설한개만은 곳잘하는 모양입듸다』

월파선생은 또 꽉 한생각이낫다

『그까진 변서이연설을잘해…나도한번잘해야지』

하는 결심이생기엿다。

一〇

면장과 김참봉은 먼저돌아가고 구장만은 뒤떠러젓다

구장은 월파선생의 지긔이다 시중의숙을 지여준사람도 이구장이요 해 마다 베를거더준것도 이 구장이다

월파선생은 간담을 토하고지내갓다

형제이상으로 지내갓다

월파선생은 넌짓하게 말햇다

『여보 구장 공립학교가 되면은 대촌리학교나 우리의숙은 망하지를 안겟소』

구장은 한참이나 생각을하드니

『아니죠、저쪽학교는 똑가튼학교끼리니까 혹 업서질는지를 몰나도 우리 의숙이야 교육하는 성질이다르니가 관계 업슬듯하오』

『글세 그러면 박선생은 엇지나될가』

『아마 잘하면 공립학교로건너가기도쉽고 그럿치 안트라도……』

구장은 또 한참이나 잇드니만 무어슬생각한듯이 생긋웃는다

『그런데 선생 이번 공립학교가 불원간 되기는 할것이나 그사품에 우리의숙은 돌오혀 리를 볼는지 몰으겟소

저긔 학교는 물론못하게될것이니가ー

만일박선생이 넘어가면 몰으거니와 못너머가게되면 그야말로 몃해동안 싸흔탑이 문허저버리겟지만ー

이 시중의숙이야 글방이니가 업서지지도안흘것이요 또、아이가 늘면늘엇지、줄지는안흘것이니가 해……』

월파선생은 저옥히 안심이되엿다

그리고 책보퉁이한아만 끼고 쓸쓸하게 돌아서가는 박선생의 뒷모양이 벌서브터 눈아페 선ー하게 나타낫다

『그리고 선생、이건우리들사이니까말이지만 박선생이 대단히 똑똑한모양입듸다 그리고 인심도 상당히 어든모양입듸다

그저 어듸를가도 박선생칭찬이구료、

그중에도 젊은사람들은 박선생이라면 사족들을 못쓰고잇구료、

나는 듯지는 못햇지만 농민강좌도 참재미잇답듸다。퍽、유식도하지만 속도터지고 말도 잘한다나봅듸다

또 아이들에게 엇더케、굴엇는지 아이들이 박선생이라면 부모보다도 더ー하게 안답듸다

저어ー어느땐가 칠성네집 아이들말요。

간도로가게돼서 아이들이 학교를그만두게되니까 아이들은 이룸이나 날마다 학교에를가서 선생을 붓들고 울엇드라나요 해……하여간 젊은사람천노코는 뛰여난사람인가 봅듸다』

월파선생은 실죽한 얼골을하고 코ー로만 흥흥하고 대답을햇다

그리다가 좀 거북살스러운 목소리로

『선생이란 강유가겸해야하니가요 공연히 아녀자가티 아이들하고 눈물이나 짤금짤금흘니면 그아이 꼴이되나요』

구장도 그제야 눈치를채고 좀 미안쩍해젓다

『해… 그럿죠、선생이란 첫재 엄해야하지!해……』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몰여가는모양요 허……내가 공연히 좋은소리를하는군…허…… 그러테 구장 자제도 그리보내시구료 허……』

구장은 딸꾹뛰엿다

『아니 선생님 망영이슈……해……하도 속이 상하니가 남의 비위를 거시는말슴이구료 해…… 내 아모리 뭐하기로 우리놈에게는 한공을 완성식혀 주고야、말걸 그려우 해……』

『허…… 다ー싱거운말이죠』

『아이구 참 나도 가보겟소 참 밤에 학예회구경가시료』

『나요 나도 우리학예회준비때문에 갈새가잇을는지요 허…』

『자、그러면 나는 건너가오』

『평안히 가슈』

대답을 하자마자 선생은 붓을 들엇다 악가쓰다노와둔『봄의 서인』을 꿈이기를시작햇다

當る廿九日迄五日間大公開 午前十一時半上映開始 階下席 大人四十錢 小人二十錢
待望の新興が發表した探偵映畫の傑作! 本格的探偵小說の映畫化 石川捕物帖 新興キネマ東京現代劇部特作 原作 水谷準 脚色 上島量 監督 久松靜兒 技師 中井朝一 オール・サウンド版
女流探訪記者 霧立のぼる、河津清三郎主演
說明 竹井誠 佐佐木味津三遺作 むっつり右門 仁念寺奇談 嵐寬壽郎 尾上紋弥 新興京都時代劇部超特作 原作 佐々木味津三 監督 押本七之助 オール・サウンド版
元祿村雨笠
永樂町 電本三五二 中央館

【三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四十分 六時半
다이야몬드·짐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에드와ー드·아놀드氏主演
悲劇의主人公 왕의記錄 十九世紀末、奇行과怪腕으로一世를驚動식히든거리의豪傑의人間記錄
MGN特作映畫 유仁社名作 NOI 로리비ー드、보레스라빗스키ー監督 마지에 반스 主演
日活特作映畫 大陸非常線 보레스라빗스키의絕腕、娛樂映畫의白眉
わたしがお嫁に行ったなら 山路ふみ子
次週封切 惡夢、어느밤의特種事件、三銃士、明朗、漫畵家、標樂의騎兵、再逢春、純白의날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 九九 團成社

三月四日ヨリ八日迄五日間破格大公開 御入場料斷乎階下席 大人二十錢 小學生十錢 晝十二時半 夜六時半始 上映順
現代劇 旅の踊り子 佐久間妙子 大都超特作 水島道太郎主演 三枝源次郎監督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時代劇 祭囃子金子市 阿部九州男 木下雙葉 久野あかね 松村光夫主演 監督は巨匠白井戰太郎
大都超大作品 さらば海軍兵學校
四堂堂封切るパラマウント本年度超大作の隨一感銘と勇奮の渦 アレキサンダー・ホール監督 サー・ガイ・スタンディング リチャード・クロムウエル ロザリンド・ケイス 主演 トム・ブラウン 助演
昔日の武勳を語る『コングレス號』が今標的艦として新鋭戰艦の前にある艦と共に年老ひし退役の老艦長の哀傷今は想出の正裝にて老艦と最後を共にするあゝ武人の此淚あり
(さらば海軍兵學校上映時間) 晝三時ヨリ 夜九時より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畫劇場

三月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 十二時、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階上席十五錢 階下席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뻬구다ー샤ー징가監督 사랑의하로밤 구레ー스·무ー아 데유리ー스·갈마나ー지 主演
前日當地封切時에絕對한讚詞를밧든音樂映畫의最高王篇! 런던앙映十二週를도든諸氏가질이아시는바입니다 스모코프라노구레ー스·무ー아嬢의아름다운노래와淸雅한音樂에陶醉하시라!!
P・C・L全發聲 山本嘉次郎監督『日の出前殺す』 あるぷす大將 丸山定夫 千葉早智子 主演
풀스아이고데특작無聲版 갈호로ー릿지監督 사랑의活殺自在 찰스빠푸이珍演
短篇喜劇! 珍技妙的大喜劇! 우습은으로서腹切…抱腹…破腹…
여러분의 鐘路二丁目 電光一五一番 第一劇場

尋牛莊漫筆

天【漢籍雜考】(上)

萬海

天에對하야는 古來로 只今까지 完定한 學說이 업다. 周易에는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未分 其氣混沌 淸濁旣分 輕者爲天 偃者爲地』라 하얏는대 이것은 兩儀卽陰陽이 나누어서 陽의淸한者는 위로 하늘이되고 陰의濁한者는 아래로 땅이되얏다는것이오 物理論에는 『水土之氣 升及天』이라 하얏고 釋名에는 『天坦也 坦然高而遠也』라하고 文選에는 『依依大園』이라하고 文仲子는 『天統元氣』라하얏다 渾天儀에는 『天形如鷄子 天大地小 表裡有水 地乘氣而立 載水而浮 天轉如車轂之運』이라 하얏스니 이것은 東洋學說에 잇서서 地球의 公轉自轉說의 濫觴이라 할것이다 晉天文志에는 『日月本東行 天西旋入於海 牽之而西 如蟻行磨上 磨左旋 蟻右行 磨疾蟻遲 不得不西』라하얏스니 이것은 天과日月의 自體는 反對方으로 行하는것이로되 天行의大氣를 따라서 日月도 西流한다는말이다 易繫辭에 『天垂象見吉凶』이라한것은 天象에 卽하야 天道人事의 吉凶을 判斷한다는 뜻이다 爾雅에 『春爲蒼天 夏爲昊天 秋爲旻天 冬爲上天 春言色 夏言氣 秋言情 冬言位 相備也』라 한것은 同一한天에 四時의 情形을 따라서 分別한것이다 天의別名으로 金闕 玉京 淸霄 碧落 穹蒼 穹窿 蒼蒼 昭昭 浩浩 旻旻 等이 잇스니 그出處를 말하자면 金闕은 神異經에 『大荒中 有金闕 名天門』이라하고 玉京은 李商仙詩에 『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이라하고 淸霄는 文選에 『凌淸霄而軼浮景』이라하고 碧落은 劉禹錫賦에 『天閒碧落』이라하고 杜子美詩에 『厚爲穹蒼上』이라는 穹蒼과 碧落와 爾雅에 『天形穹窿』이라는 穹窿이 잇고 莊子의 『蒼蒼 天之正色』 中庸의 『天斯昭昭之多』 『浩浩其天』 等이잇고 旻旻은 論語에 『巍巍乎 唯天爲大』라고 하얏다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六)

洪起文

古史上 吏讀文名詞는 朝鮮史家로서 반듯이 究明을 要하여야 할 問題다. 丹齋의말슴과가티 錯誤가 거긔서 校正되고 訛誤가 거긔서 歸眞되고 各時代의本色도 거긔서 綜露되고 이미散佚된 朝鮮史上의 重大事蹟도 거긔서

◇發 見될는지 모른다(朝鮮史研究艸第一張參照) 그러나 個個語詞에對하야 獨自的解釋을 나린 사람은 許多하지만은 一定한 方法을 가저 體系잇는 解釋을 試驗한 이로는 丹齋가 처음이다。丹齋自己의 말슴대로 그것이 果然地中古蹟의 發掘에도 비길만한 歷史研究의 秘鑰이라고 할진댄 丹齋야말로 그秘鑰의 發見者다。(上同參照) 그러면 丹齋의 解釋이란 어떠한것인가 그 槪要를 紹介키로하자。

(一)本文의 自證。丹齋는 解釋法의 第一方法으로 이를 들엇스니 即 三國史記職官志에 『角干一名舒弗邯』『舒發翰』과 가튼 例는 그本文만으로써 解釋키에 可能하다는 것이다。그는舒弗邯舒發을 쇠뿔 即 角의意로 干翰邯(邯翰의邯과同音)等을 全部 한의 音으로 풀되 쇠뿔한의 意譯이 그러케 다각가다른것이니 最近까지

◇武 官을 쇠뿔에기라고 하든것도 그遺風이라고하얏다。(朝鮮史 研究草第二張―三張參照)

(二)同類의傍證。이것이 그의第二解釋法이니 即 彌鄒忽 述爾忽 比列忽 冬比忽 또 租波衣 仇斯波衣 別史波衣等의 忽、波衣等을 모아서 그本義를 解釋하자는 例다。그는『忽』을『골』로 『波衣』를『바위』로 풀엇다(上同第三張參照)

(三)前名의遡證。이것이 그의第三解釋法이니。即 九月山의古名 弓忽 弓忽의別名 劍牟縣或劍平縣으로 미루어 九月山의原名을 캐자는例다。그는九月山이 弓忽山이라고 한것인데 後來그 類似音을 取하야 九月山이라고 한것이라고 풀엇다。(上同第三張―第四張參照)

(四)後名의追證 이것이 그의 第四解釋法이니 卽 高句麗 大兄一名近支 또는 太大兄 新羅의 上大等 乃至 蒙古의

◇成 吉思汗等으로써 三國志三韓傳에 보인 臣智(諸官) 臣智(大官)의 本語를 찾자는 例다。그에 依하면 蒙古語로 成吉은 太大의 義로 싱크라고 읽는데 臣智의 臣은『싱』近支의近은『크』로서 上大等의 上大 太大兄의 太大가 모다『싱크』의 義譯이 아니라고 말하얏다。(上同第四張―第五張參照)

(五)同名異字의互證。그는 이를 第五의 解釋法으로 들엇스니 即 斯盧、河羅、大良、樂浪、平壤、平那、百牙、大那 牙 那 洛等의 羅 良 浪 壤 那 牙 那 洛等은 모다『라』로 川의 義라는것이다。그는 新羅가 斯盧、大良이 大耶 駕洛이 伽耶 樂浪이 梁良等으로 通用되는例를 들고 다시 三國史記의 故國壤一名故國川 素那一名金川等으로 그 川의義됨을 證明하얏다。(上同第五張―第六張參照)

(六)異身同名의互證。그는이를 第六의解釋法으로 들엇스니 即

◇遼 史樂宗本紀의『鴨子河爲混同江』三國史記地理志의『遼東城本名烏列忽』또는 三國遺事의『遼河一名鴨淥』또는 그外의『鴨水一名阿里水』等 各處鴨淥의 源語는 『아리』라는것이다。그는阿里 烏列 鴨淥은 모도 아리의 吏讀로 대고 다시 長白山古名의 阿里民商堅으로 아리의義를『長』으로 斷定하얏다。(上同第六張―七張參照)

勿論 丹齋의 六條 解釋法을 完全無缺한것이라고 말하기는어렵다。解釋法의 項目을 세우는데잇서 오즉 文獻에만 偏倚하게 치우친것도 큰 缺陷이려니와 그項目을 區別하는데 잇서 甚히 精密치 못 한것도 적지 안한 缺陷이다。

(一)古史上의 吏讀文을 解釋하자면 그時代의 古語와그時代의 漢字音을 밝히어야 하고 또 吏讀自體의 變遷도 밝혀야 할것이 아닌가? 獨斷에 빠지게 될것이 아닌가?

(二)本文自證의 解釋法은 그記錄된 文獻을 標準하야 세우고 그나머지는 名詞自體를 標準하야 세운것이라 그分類의 標準이 서로矛盾되지안는가? 角干 一名舒發翰도 究竟 同名異字의 項目아래 包括시키어 조흘것인데 왜 第一의項目을 따로세웟는가?

히어야 하는等 만큼 重要가 잇지안는가? 단지

◇文 獻으로만 주장해서 못한 적지안타。그뿐이 아니라 그解釋法의例證으로 드는데도 獨斷의 冒險이 적지안타。위선 荒宗一名 居柒夫 苔宗一名 異斯夫로서 荒을 『거칠』苔를 『잇』으로 解釋하는데는 異論이 업다 하드라도 夫字의 古音은 『우』라고 斷定하는데는 업는證據를 가지고 斷定하는데는 (上同 三張參照) 宗字에對하야는 어떠케 說明하려는가? 그러나 그러한것으로 白玉의 티로서 그宗字를 祖述하지는 못할것이다。

埃及古老의長生法

【카이로發同盟郵信】카이로市에사는 『악·모하메드』老는 當年百十二、埃及에서 第一의高齡者라고하는데 職業은 山羊乳의配達者로 只今도아직 壯者를凌駕할만한 元氣로서 每朝各집에 羊乳를 配達하고 도라다니는데 이老人에게 『長壽의秘訣如何』를 뭇는즉 다음과 갓흔 四個條를 말하엿다 『나와가티 長生을하고십은사람은다음과가튼 條目을직히면된다

第一、酒을먹지말일
第二、煙草를피우지말일
第三、快樂에溺치말일
第四、學問에머리를疲困케하지말일

以上네가지가운데 第四는 더욱이 『모이멘드』老人의 가장熱熱히 主張하는 點인데 『學問하는者로長生하는者는업다』고한다 이老人의 세끼의 食事는朝晝는곳을 뒤친것이면 저녁은 少量의고기(肉)와野菜로서 이것을 每日規則잇게 먹는다고한다 그에게는最初에 最後의子가한사람잇고 그 子는 九十歲이나男兒의 食攝法을 따라온때문인지퍽健康하다 또한사람의 아들은今年六十五歲라고한다

漢詩

春雪―押風 (課外佳作之七)

桐崗考選

惠山邑 金炅我

春意遲寒未畢融
雪花片片舞東風
亂飛徐落遲成迹
乍積旋消遽作淙
隔岸橫斜疑柳絮
入園點綴信梅叢
過冬悶旱方纔解
從此田家占麥豊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南行詩抄【二】

一統一營

白石

統營장 낫대들엇다
갓한닙쓰고 건시한접사고 홍공단단기한감끈코
술한병바더들고
화륜선 만저보려 선창가스다
오다 가수내 들어가는 주막앞에
문둥이 품마타령 듯다가
열니레달이 올라서
나루배타고 판데목 지나간다 간다

―徐丙鎭氏에게―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⑤

韓曉

그리하야 前者는 藝術의役割과 世界觀과의關係에對한 俗流的理解의深淵에陷落되여 藝術家의現實에對한 眞實性잇는 具體的認識을抹殺하고 도리어그現實의具體性을 露骨的인論理的定式과圖式的레―제에代置하는 一種形式主義的象徵主義에로

猛 走하지안흐면아니되게되엿스며 後者는 藝術의認識의特殊性을工巧로히 卑俗化식혀서 藝術은어데까지든지 自身일뿐 그以外의아무것도아니라는 藝術至上主義的偏向과 藝術의階級的從屬物도아니고 또政治的宣傳道具도아니라는 至極히 皮相的斷案을가지고 人生을爲한 藝術에의粉裝을꾀하는 똥키호―테―的狂想의속에서 實로藝術的인魔術을가지고 藝術의社會的機能을抹殺하려는 어리석은反動的反撥을 맛치阿片中毒者와도가티 어느때까지든지 繼續하지안흐면아니되는것이다

그러나 前者即方法과世界觀의混同根의偏向은 昨年度에잇서서의 創作方法에關한 우리들의論爭에잇서서 몃번이나角度를變更하야 相互批判하게되엿슴으로써 事實上嚴然히揚棄되여진바이라고 밋어진다 이러한側面으로서만 觀察한다고하드라도 昨年度의 우리들의 論爭의結果가 決코去勢者의 애구진悲鳴과도갓튼 그러한虛無的酬酌은 아니엿을것이로되 最近一部同僚的 批評家들의사이에잇서서도 오히려 그것이 至極히 過少評價되는傾向을 目擊하게되는것은 實로遺憾되는바이다

日前中央日報所載의 林和氏의長論文의속에서 나는 우리들의論爭을 一個作品評의 意義보다도 오히려낫게評價하는 至極히不美한言說을 發見하게되엿을뿐아니라 그것을過去의 文學史를無視하는抽象論이엿다고 斷言함으로써 一律的으로 그全體의意義를抹殺하려는 너무나 獨斷的인偏向까지도 目擊하게되엿기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리好意를 가지고 解釋한다손치드라도 決코正當한論理라고 規定할수는 업는것이다

우리들의論爭을 觀念한三角關係라고 罵倒하는言說(李軒求)그리고 그것을僧徒의 念佛과도갓다고斷定하고 一切의 理論的解明을拒否하는言說(白鐵)이두가지嘆言 林和氏의그러한言說의 果然우리는 如何한 區別을가지고 對할수가잇슬것인가?(그러타고 나는決코우리들의 論爭을 無條件하고 過大評價하여달나는 그러한어리석은말을 하려는것은아니다 오직 何等의理論과는 方法論과를 對照評價하는 性急을 排擊할따름이다)

우리가 過去에잇서서 恒時우리들의 諸論理의속에서 不絶히 發見한바

存 在의法則과思惟의法則과를同一視하는 政治主義的偏向은 確實히 昨年度의創作方法에關한論爭에依하야 完全히 克服되엿바이며 더욱히 方法의作品上에의 滲透를 아조第三者的立場에서 檢討하려는 一種形式主義的作品評(金南天氏의昨年七月創作評)이犯한바 認識의對象과認識의 形式과의 機械的分裂即 프레하노프的인 認識論과 論理學과의分裂의過誤와 一方朝鮮現實이라는 論考를가지고 우리들의 理論의正當性을拒否하고 甚至於는 卓上空論이라고 罵倒하든 稚拙한分子들의 無理解까지도 우리들의 執拗한論難은 매우效果的으로 批判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論爭이 너무나 反省업는私感의 發作과도가튼 至極히不美한 既說을가지고 一貫되여온것은 참으로遺憾되는바이지만 그러타고 遺憾을그成果의全面에代置하야 評價하는것은 贊成할態度가못된다

말이 너무邪道에들어간듯하야 要컨대 藝術家의 世界觀과 方法과를 同一視하는偏向의克服에寄與된우리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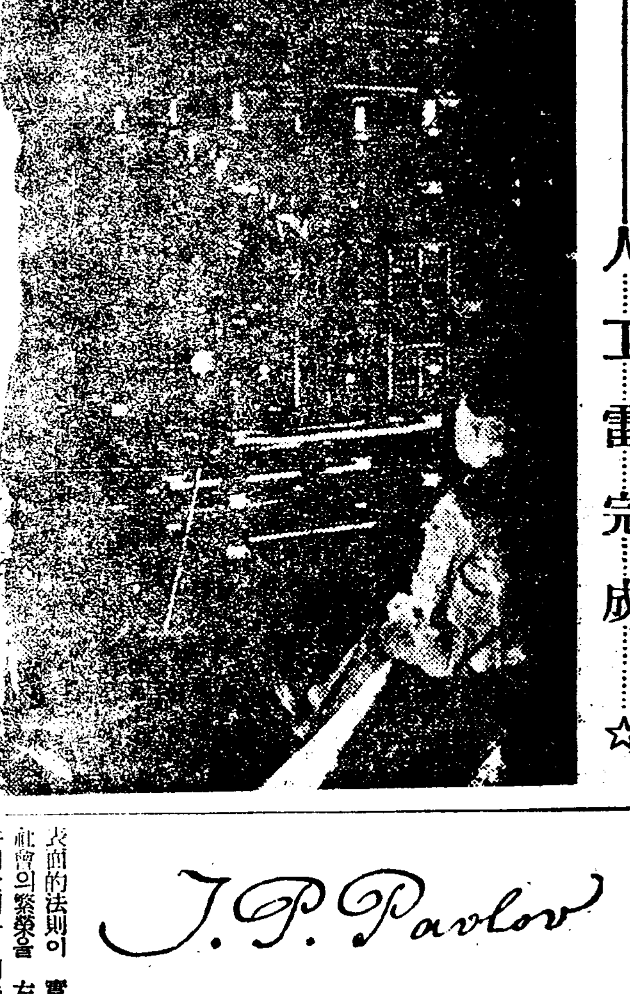
論 爭의一面의 成果만흘가지고도 우리는 決코그러케까지 그意義를 低下할必要는업는것이다

그리고 後者의方法과世界觀과의機械的分裂의 偏向에對하야서는 過去의우리들의 文學的(新興文學發生以後)諸過程에 잇서서 不絶히 反擊을加하여왓섯스나 最近에와서 至極히不安한 社會的情勢의諸動向과 그리고 直覺經驗한바 肉體的苦痛의 一事件을契機로한 一部文學者의 無原則한恐怖症은 依然新機軸的粉裝의神秘를다하는 魔術의强化에依하야 將次그들의 靈魂까지도 捨棄되여질 墓地에서 그들의先驅的骸骨을다시 들처내기에餘念이업는 復古主義的狂信者들의狂舞와代置되여 實로退嬰的殘滓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殘酷한混亂을 우리文壇에 呈示하고잇는것이다.

生理學의世界的權威「파블로프」永眠

【莫斯科】『자베트·로시안』生理學界의權威『이봔·페트로비취·파블로프』敎授는 二月二十九日아츰 當地에서 逝去하엿다。享年이八十七歲。『파블로프』敎授는『쌋베트·로시야』學士院會員으로 일즉이 그는 개가 思考할수잇는가 업는가를 試驗하는 實驗으로 世界的 名聲을 어덧다。

그後 獨逸大學에서 數年間研究를싸코 歸國하야 一八九七年에는 뻭피터스뻭大學의 敎授로 被任되엿다。一九〇四年에는 노벨科學賞을받고 一九〇七年에는 露西亞學士院의任員으로 被選되엿다。그러고六年後에는實驗醫學研究所長으로 任命되엿다。그동안에 그는條件反射學의 研究를 시작하엿는데 그는 臨終하는때까지 이 研究에 그의 精力을 注入하엿다。革命後에는『싸베트』政權에서 積極的으로 敎授의 研究와 事業을 聲援하여 그의 實驗室은 좀더 廣闊한 研究를위하야 生理學及病理學研究所로 改造되고 敎授自身이 그長이되엿다。이機關은 착고發展하야 一九三五年에는 敎授와 그門弟들에게 『레닌그라드』郊外『콜루트시』에 한거리를 일우게되엿다。大小數十의 研究所外에 敎授의 私邸며 門弟들의 數多한 私邸들로만된 이 地區는 私設發電所를 가지고 또 世界어데서나 그類例를 볼수업을만치 完備된 無數한 犬舍를 자랑하게되엿다。一九三四年에는 政府에서『파블로프』獎學金을設定하고 有望한靑年學徒에게 年에五百留를 授與하야 生理學의 研究를 獎勵하기로하엿다。이와同時하야『파블로프』敎授의 이름을 딸어 政府에서는 또 二萬留의 賞金制를세워 每年 生理學界에서 가장 그功績이 赫赫한 研究家에게 이것을 提供하기로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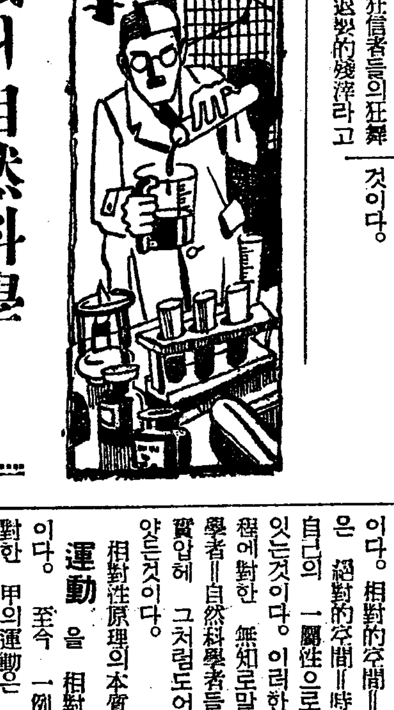


★人工雷完成☆

危機의自然科學

그超克의길은무엇인가? ③

金成圭



그러나 그것은決코 空間과時間그自體가 崩壞하얏다는것은 안이다。物質의 哲學的槪念과 物理學的槪念의區別을 判斷치못하는 物理學者=自然科學者들은時時刻刻으로發展하고 變革되여가는 物質의 物理學的槪念의 受遷을맛치 物質의崩壞、科學의破滅인것갓치 認定하고 慌唐하야 歸納할바를 몰으게 混亂하고잇다。發展과變化는 矛盾을包含함이오 矛盾은 새로운綜合에 止揚되는것이다。止揚은 消滅이안이다。止揚은 止揚되것을 自己의모―멘트의 一로써 包含하고잇는것이다。相對的空間=時間의 槪念은 絶對的空間=時間의 槪念을 自己의 一關性으로써 內包하고 잇는것이다。이러한 辯證法的過程에對한 無知로말미아마 物理學者=自然科學者들은 새로운事實앞에 그처럼도어지럽게狼狽하얏든것이다。

相對性原理의本質은

運動 을 相對的으로보는것이다。至今 一例를들면 乙에對한 甲의運動은 甲에對한 乙의運動과 同一한것이다。더좀正確하게말하면 運動은 甲乙間의運動이라는것이다。甲의 運動과乙의運動은 甲乙間의 運動으로統一되는것이다。相對性原理에잇서의運動은 辯證法的인 運動以外에 아모것도안인것이다。

다음에 相對性原理에잇서 物質이如何히 解釋되는가를 보기로하자。『뉴―톤』의形而上學的物理學에잇서서는 絶對的인空間이容器와도갓치 存在하고 그안에 孤立된物質이 位置를占領하고잇다。空間과物質의槪念은 全혀 性質을달리하는 二個의範疇이다。『아인스타인』은 物質自身의存在를 複雜한曲率을가진 特殊한空間時間(또는空間)으로 說明하야 物質을 空間(時間)의部分部分의 歪曲된것이다。그럼으로 空間(時間)과物質은 絶對的으로對立되는것이안이오 曲率의變換을媒介로하고 統一的으로 聯關하고잇는것이다。이러한

媒介 된統一物을 場이라고한다。場은 空間(時間)과物質의 統一物이다。場의槪念은 空間과物質의 辯證法的統一을 意味한다。

以上으로 空間、時間、運動等等의 相對性을 主張하는 相對性原理가 당홈이안이오 物理學에잇서서의 辯證法的方法의勝利를 意味하는以外에 아모것도안임이 明白하야젓다。相對主義가 絶對主義를 止揚하엿다는 것은 相對主義와絶對主義의 辯證法的統一이 相對性原理의 本質인것이다。이에 關하야 相對性原理를 相對主義로 그로부터 哲學的不可知論과 懷疑主義 新칸트主義와 마人主義의勝利를 불으짓는다。物理學은 相對性原理의 確立을 契機로하야 形而上學的 見解에서 辯證法的見解로 移行한것이다。

『파블로프』教授의學說와略歷 ❶

李鶴松

J. P. Pavlov

人類의 福利와 社會의 繁榮은 政治 經濟와 가장 密接한關係를 가지고 잇는 것으로 생각하는것이 一般의傾向이다 그러나 이런 種類의 생각은 언뎐必要條件을 忘却한生覺이라함이 適切하겟다 決코治政經濟와 가튼 表面的法則이 實로人類의 福利 社會의繁榮을 左右하는 必要條件이안이다 이는 다만어떤必要條件을 核으로한 充分條件의 하나에不過하다 우리의 生命을 威脅하는 傳染病이 流行할때에 政治經濟의 힘만으로 이것을退治하기는 매우어려운일이다 이것을 退治함에는 반다시 그傳染病의 本體인 病原菌과 病原菌의 撲滅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을 基礎로하고 動하지안으면아무리 合理的機構를 가젓다할지라도 到底히不可能할것이다 그럼으로 人類福利의增進은 科學의 發達을 必要로한다 다시말하면 科學은 人類福利의 消長과 至大한關係를가진 必要條件이다 『히틀러』는『東洋의 어떤나라는 만일三十年間鎖國을하면 自滅을 免치못할것이다 그民族은 模倣力만잇고 科學的獨創力이업는까닭이다』라고 말하엿다 이는 東洋民族을 充分히 理解하지못하는 酷評의 一片이다。 그러나 科學과 民族의 盛衰와의 關係를밝게 말한것만은 吾人의 注意를끌고잇다 最近에이르러 文部省에서 直轄하는 帝國大學에 自然科學方面에 關한 理工醫農科만을 設置케하자는 說이 擡頭하고잇다 그뿐만안이다 科學에對한獎學金이 年年이 增加하는現狀이다 朝鮮에잇서서도 朝鮮醫師協會에도 獎學金이잇고 朝鮮醫學會獎學會에 獎學金이 잇다 그밧게 新聞雜誌科學欄의 內容이 漸漸充實을 向하여 힘쓰는 傾向이보인다

이러케 人類와 至大한 關係를가지고잇는科學에 貢獻이만은 學者는 人類를 幸福의 公道로 引導하는 큰 恩人이다 그런데 露西亞가 나은 우리의恩人이오 先生인 파부로―프先生은 享年八十七歲로 二月二十七日 우리를 냉겨노코 永眠의 길을떠나섯다。先生의 一日은 우리를한거름 더安寧의 地域으로갓갑게 할것을 生覺할때 實로哀悼의情을 禁치못하겟다

先生은 一八四八年九月二十六日 露西亞의 一僧侶의 令息으로 出生하여 露西亞에서 所定의 敎育을 바든後 獨逸에 留學하엿다、特히 루도비과 胃生理學의 泰斗인 하이덴하인門下에서 胃生理를 研究하엿다 一八八三年에 醫學學位를 어덧스나 一個微微한 寒士에 지나지못하엿다 世間의 平凡한 認定을밧고잇던 先生의 가삼속에 는 남모르는 獨創力이 깁히潛在하여잇는것을 그때누가 알엇스랴、先生은『人不知而不慍』主義로 旣得의 知識과 經驗을土臺로한 堅實한 想像을 向하여 不屈의 努力을 繼續하엿다。先生의 獨特한 獨創力에 나는業績은 胃의 生理와條件反射이다 胃의 機能에 對하여는 오래前佛蘭西에(레오미―루氏(一六八三―一七五七年)始作하엿다 即 레오미―루氏는 日常 소리개(鳶)를 愛好하며 그새에게 食餌를주고 그習性을 觀察하다가 間或不消化物을 먹은때에 그것을吐하는것을 보고적은 錫製圓筒에 海綿을 充塡한것을 嚥下시켯다 그錫製圓筒은 不消化物임으로 얼마後에 다시吐하게되다 이때에 그圓筒속에 擴充하엿던 海綿에 吸收된胃液을 採取하여 여러가지 實驗을하여 본結果胃液은 肉類와 骨等을 消化시키는 힘이잇는것을 알게되엿다 이것이 胃生理를 研究한 最初의 業績이다 그後獨逸의『하이덴하인』氏는 所謂『하이덴하인』胃囊라는것을 創始하여 胃內에 流出하는 胃液을 採取하여 胃液의 作用을研究하엿다

時調 書帖 (其四十)

네집이 어데메오 이메넘어 긴江우에
竹林 푸른곳에 외사립 다든집이
그압헤 白鷗ㅣ떳스니 게가무러보아라

(失 名 氏)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第二幕 第二場

【登場人物】

卞學道
春香
戶房
刑吏
通引
級唱
行首妓生
吏房
執杖使令
其他使令妓生數十名。

【場面】東軒。

前場과가튼날。新官使道卞學道가 도임한當日임으로 東軒의丹靑까지 새로워보인다。

春은 妓生點考하는소리에 열린다。

戶房은 案冊을 드려노코 次例로 數十名妓生이 죽늘어선압해서 강성을돋위 진양조로 呼名한다。呼名에 따라 妓生 치마를 거더안고 使道아페요마하고안는다。

戶房 (브른다) 渭城朝雨 浥輕塵 客舍靑靑柳色이 왓느냐?

妓生一 예 등대하얏소。

戶房 紗窓에 비취엇다 擲緘影子 初月이 왓느냐?

妓生二 예 등대하얏소。

戶房 喃喃枝上 봄바람 說之項之 飛燕이 왓느냐?

妓生三 예 등대하얏소。

戶房 千里江陵 느저간다、朝辭白帝 彩雲이 왓느냐?

妓生四 예 등대하얏소。

卞學道 (妓生四를가르키며) 그년 쓸마하고낭 너 나이 몃살이니?

妓生四 설흔두살이옵시다。

卞學道 아서라 게집이 삼십이넘엇스니 시절이 다 지냇다。저만큼 방술로 가서랑。

戶房 借問酒家 何處在 牧童이 遙指 杏花왓느냐?

妓生五 예 등대하얏소。

卞學道 기생점고를 그러케 느리게 하면 몃날몃칠 모르겟고냐。갑갑해서 듯겟느냐? 밧비밧비 불너랑。

戶房 여이(聽令하고는 재게부르기 시작한다)思君不見 半月이

妓生六 예ㅣ

戶房 四對長春 竹葉이

妓生七 예ㅣ

戶房 蘭香이

妓生八 예ㅣ

戶房 翡翠이

卞學道 아서라、점고 그만 두어라、남원이 색향이라더니 쓸만한년 하나 업고냥。고이한년들 가트니! 분만、바르면되는줄알고……이년들 다 몰아내처랑。

戶房 (使道의 사나운 눈을피하며) 여이 (妓生들 戶房이 분부하기전에 슬슬 피하야나간다)

卞學道 춘향이란 년을 부르려 보내다더니 웨 아작 기별이 업느냐?

戶房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춘향이집에다가 향수기생을 전차분부하옵고 게다가 재촉사령을 보내삽는데 아즉 소식이 업사오이다。

卞學道 춘향집이 동헌서 얼마나 되느냐?

戶房 여기서 공숙문(拱宿門)을 내다라종로(鍾路)를지나 남문(南門) 밧글써 나서서 얼마안나가면 바로 거기가 춘향의집인줄로 아뢰오

卞學道 입시라도 지체말고 춘향을 밧비불러 대령하랑。

戶房 예이

(이때 春香을 불르러갓든 行首妓生(金音)허덕이며 그러나 조심성스럽게登場。戶房에게다 귀스속말을한다。戶房별안간얼굴이 흙빗이된다)

卞學道 무어냐?

戶房 아뢰옵기 황송하오되 소인이 바그로 춘향을 불럿더니 춘향은 제랑군을 생각하야 병이 드러 두문불출한다 하옵니다。

卞學道 정녕 그러하냐?

行首妓生 죽어도 현신못하겟다 하옵되다。

戶房 사스도 처분이 어떠하실는지오。

卞學道 (노발대발하야)관장이부르는데그래 죽어도 대령못한단말이냐? 요 주리 알며라 가르니! 남원고을에는그래 이런 요망스러운 들 박게 업단말이냐?

戶房 곳 재촉사령을 또한번보내리까?

卞學道 아까 보내다는놈들은 무얻어하고 잇슬까? 그년을 대똥 머리채를 거들고오지안코 ―

行首妓生 저기 춘향이를 잡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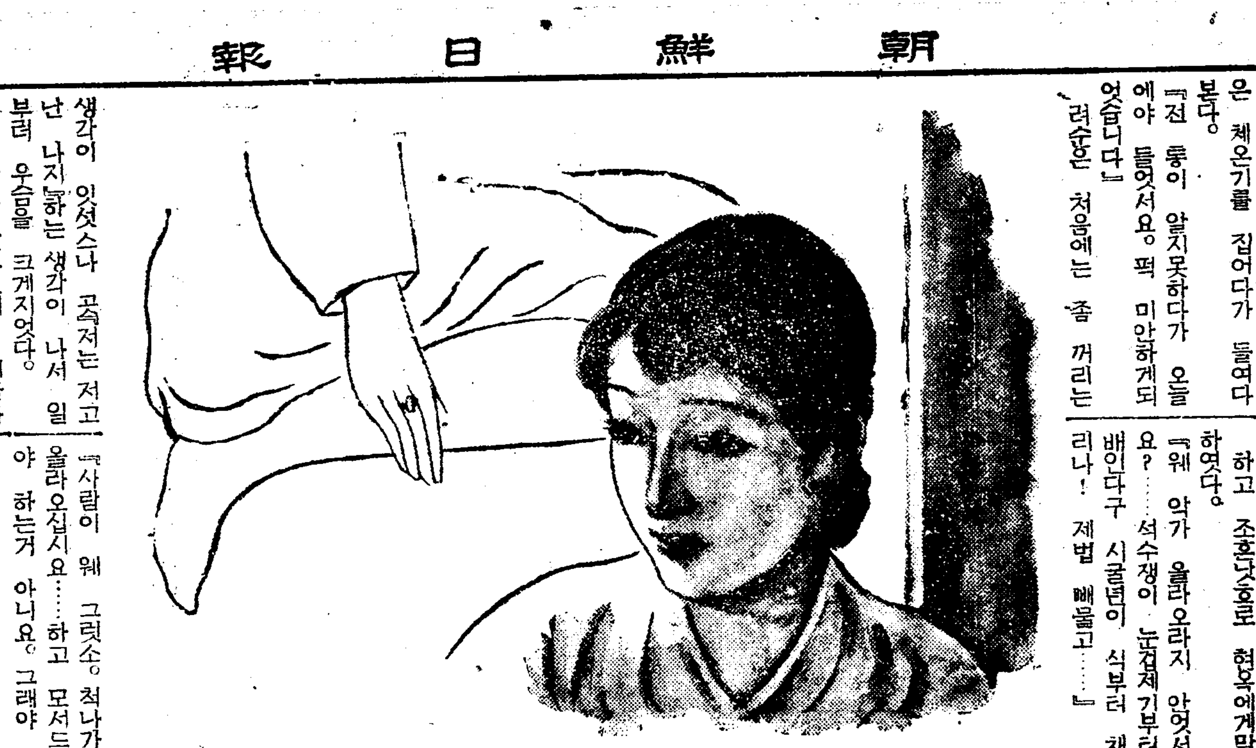
(使令二名 春香을 붓들고 登場한다)

新刊紹介

▲野談 三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 野談社發行 振替京城一一八三六番 定價二十錢
▲批判 三月號 京城府寬勳洞一四六 批判社發行 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朝鮮農會斡旋通報 第五十六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斡旋部發行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六錢
▲平壤誌 張道斌著 平壤府慶上里一一〇 平壤商工社發行 定價三圓 振替京城一二〇二一番
▲神學世界 第二十一卷一號 京城府冷洞三一 神學世界編輯部發行 振替京城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十年十一月分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發行 定價五十錢
▲基督敎報 第四十四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發行 振替京城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江西安孝子傳 江西郡東津面籌浦里一三四 平和商會發行 定價十錢
▲高麗公論 三月號 開城東本町 高麗公論社發行 振替京城五〇二九番 定價一部拾錢
▲聖書朝鮮 三月號 京城府外龍江面孔德里活人洞一三〇ノ三 聖書朝鮮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東京朝鮮民報 第二十七號 東京市芝區田村町四ノ九 東京朝鮮民報社發行 振替東京四六一二〇番 定價一部五錢
▲카톨릭靑年 三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릭靑年社發行 振替京城一二三四五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貞信 第二號 京城蓮池洞一三六 貞信女學生基督敎靑年會發行(非賣品)
▲世界童話集 崔仁化著 京城府慶雲洞九六 大衆書店發行 振替京城四二七四番 定價十五錢 送料二錢

黃昏 【28】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예감(豫感) (五)

려순은 먼저 안스방에 가서 경재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몃마듸말을 주고바든후에 건는방으로 걸어왓다.

『아, 려순씨 오십니까?』

경재는 벌덕 이러나며 반가히 인사하고 들어오기를 권하엿다.

『선생님이 편찬으시다드니 좀어떠세요?』

려순은 먼저 현옥에게 목례(目禮)하고 경재에게 이러케말하엿다.

『뭐, 인제 괜찬습니다. 들어오십시요』

하며 경재가 자리를내고 방석을 차자다 노으라는것을

『가만 누어 게서요』

하며 현옥은 경재가 뽑아노은 체온기를 집어다가 들여다본다.

『전 통이 알지못하다가 오늘에야 들엇서요. 퍽 미안하게되엇습니다』

려순은 처음에는 좀 꺼리는

『아니예요』

하며 려순은 짐짓 망서리엇다. 올라가기가 거북한것보다도 가지고온 실과봉지를 내여노키가 어쩐지 몹시 어색햇든것이다——번번치안흔걸 어떠케 내놋노? 현옥이나 업섯스면 또 모르겟는데. 그만 마루에 슬적 노아두고 가버릴까?……오래선세를지다가 생래 처음으로 선사라고주어보는 려순에게는 그것이 자못 괴로운일이엇다. 그리다가 현옥이가 경재의 자리를 바르잡아깔고잇는사이에 려순은

『가겟습니다』

하고 실과봉지를 살며시 듸려노코 홱 돌아서 대숨에 나와버렷다.

경재는 그가 나가버리자 얼는 실과봉지를 뒤로 돌여노며

『웨 올나오라지 안어요?』

하고 조흔낫흐로 현옥에게말하엿다.

『웨 악가 올라오라지 안어서요?……석수쟁이 눈검제기부터 배인다구 시굴년이 식부러 채리나! 제법 빼물고……』

위 서울양반이지』

『피—, 누가? 내가…… 배압허서……그까짓걸 다 모서드려요?』

현옥은 자긔의얼굴의미(美)를 돌볼여지조차업시 증오의빗을내보엿다. 자긔의존재를 누르는려순의아름다움이 그만치 몹시미웟든것이다.

『웨 그러케두 사람이 아량이 업습니까?』

경재는 그저 빙글빙글 웃고만잇다.

『아량!……그런 아량은 잇술가봐 겁닙니다』

『현옥씨는 녀류사교계의 화형인줄 알엇드니 하하하……』

『웨 오늘 보시니까 틀렷습니까? 조흔기회를 노처서 섭섭하시겟습니다. 그러나 되지두안을생각은 하지마시구 들어나누서요』

하고 현옥은 경재의억개를 슬며시 밀다가

『이거 뭐야?』

하며 실과봉지를 집어간다.

『아니예요. 그대루 두시우』

경재는 발서 그다음에 나올 현옥의말이 다 짐작되엇다.

『호호호…… 주책업는년! 야사에서 산게로구나. 참말 전염병을 듸려줄심산가?……』

이번은 경재의얼굴에 깁흔 증오의빗이 떳다

☆曆☆ 三月六日 (金) (十二日)

二月雞辛卯小 丁亥·土·亢·成

◎祭祀에宜함

●望六日(舊十三日)

●春分十六日(舊二十一日)

劇藝術研究會 九回公演을보고 (四)

朴英鎬

그리고 第三幕에 떡쇠와 愛玉이한테 쪼기여 나가는대목은 적어도自己의 半生의塔이 문허지는 그런絶望的인 큰悲哀와 거기서發作하는 憤怒와反抗이 보여야할것인데 넘우나 忍從的이엇다. 그러나 大體로보아서 조왓다. 孃에對한 企待는 現在보다 明日에 잇다.

愛玉(金德玉扮).

퍽印象的인 演技者시다. 귀가 어둡고 若干꼿난이로서의 어색한 몸매무시나 語調가 퍽 自然스러웟다. 그의一言一動이 주는바 印象的의利點은 疑心업시 演出者柳致眞氏의 用意周到한 導演感覺이다. 한가지 흠이라고하면 第三幕에 崔氏와싸호는 場面은 다른때보다도 그가興奮한때의 動作이나 語調라야 할것이다. 다를때는 그러케 한마듸의말과 한개의 動作이 鈍하던 그로서 도리혀 興奮할때에 벼란간流暢하고 自然스러워지는것은 不自然의主樣이다. 演出者는 이點을 注意하시라.

떡쇠(李雄扮).

먼저 演出者에게 質問한다. 朴…은니키다(떡쇠)를 美男이라고하엿다.

그리고 作品上의 떡쇠는 不可不美男이 안될수업시된人物이다. 崔氏、간난이、愛玉其他 수업는村女들의 마음을 움직이게한것이 첫대백이루 그가 美男이라는 原始的條件이다.

그러나 李雄氏의떡쇠는 美男은커녕 醜男의분이며 따라서 完全한『三枚目』의 분장이다 이것은 演出의 致命傷的인 認識不足이다. 이것이 原因이되여서 떡쇠는 다시救出할수업고 하잘것업고 極히 類型的인 喜劇俳優로 墮落되엿다.

그리고 隨時로 良心上苛責을 늣기고 自己의罪惡을 抑制하려고 애슴에도不拘하고 그의 周圍를싸고도는 淫蕩한 色情的인 肉體的條件때문에 점점 罪惡의 深淵속으로 미끄러저 들어가는 뼈절인苦悶이라고는 도모지 늣길수업다. 그리고또 머슴時代에 양복쟁이時代로옴아오는 二幕과 三幕은 틀모죽이 人生一代間의 文化的變遷가 생긴다. 글세 어떨던지?

떡쇠(金學鎭扮).

普通이다. 別로取할 구석이업다. 一見滑稽味가 多分하고陰謀的인듯하나 그리칼칼한 演技가 못된다. 좀더奸譎하고능청맛고 狡猾하면서도 어딘가 일뜻그러自體를 폐하는 典型的 陰謀性이 들어나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의普通以上의洗練된 演技이지라 크게 稱歎하는바 잇다.

떡쇠父(孟晩植扮).

成功이다. 외착업는 成功이다 作品全篇을 通하야 太陽과가티 뚜렷한 存在이다. 나는그를推奬하고 자랑하기에 適當한 形容詞를 찻지못하엿다 한두곤데缺點이 보이기는하나, 全體의成績이 그것을 숨겨준다. 素朴한 農民으로서의 所謂人情義理에 對한 단단한 信念, 典型的인 良心擁護의氣質, 물셈듬 업시 言動에 周到된 罪惡에 對한 憎惡等모두살엇다.

다시금 되푸리하거니와 이어둥의힘』에 잇서서 나의머리속에 無形의 記念牌를세워준 印象的인 演技者는 金一英扮의 表生員과 金德玉扮의 愛玉과 孟晩植扮의 떡쇠父이다.

이다음에도 여러분이 잇스나 大部分이 조왓다는 것만말해두고 紙面關係로 다음것으로넘어간다

푸른도나우의물결

집시의참音樂과 또그들의生活을 보이는映畵로 부리깃테·헤름 조셉·실드크라우트 드로시·푸젓트共演, 로드·집시管絃樂團도 出演. 監督은 하바드·윌콕스

長足으로進步되는 中國의映畵藝術 (上)

徐元德

G우맨 실비아·시드니 主演 파라마운트社新作映畵。 自己의 戀人은 意外에도 깽이라 그로因해 追跡도 맛고窮境에까지 들어간다. G맨과 깽사이에 끼워서 苦悶을 울고 잇는 女性의 이야기다

現在中國의藝術運動은 映畵를主軸으로하고 文學、音樂、演劇等의크다란廻轉을하고잇다. 映畵와 舞臺의交流. 이러한論議는벌서再昨年末、上海에서開演한 第一回 上海舞臺協會의公演에서 그端緖를보엿다. 聯華影片公司에서는金燄、當時藝華影片公司에잇든 王瑩과또한 胡萍、電通影片公司에서는袁牧之、舞臺導演으로는 電通에서『桃李刼』을撮影한 應雲衛等이 陸續參加하엿다. 或은于伶의 復旦劇社로復歸한 事實가튼것을 枚擧할수도잇스나 더구나昨年末을期해서 公演된『欽差大臣』(코고ー고리原作,上海業餘劇人第二次公演)에는 金山、施超、段秀岑、吳玢、王瑩、鄭君里、葉露茜等二三의舞臺人을 除한外에 거의全部가映畵人이엿다. 原作에依한思想의깁히 그보담도 映畵的手法을演劇에溶解식힌新顯斧한舞臺面의華麗 이것이그演劇으로하여금 好評을밧게한 主因의하나일것이다. 이밧게도 男優의 名星인 唐槐秋는電通에서나와서 獨立中國旅行劇團을 組織하야 上海、北平、南京等地에서벌서몃번이나 公演을하고 모다絕讚을바덧다. 音樂은일직이 配音版의試鍊으로서『漁光曲』을나혓다.

作者는 日本에서溺死한新進作曲家聶耳、北平輔의『렘포』는』려도 그말할수업는哀調는 누구나 조하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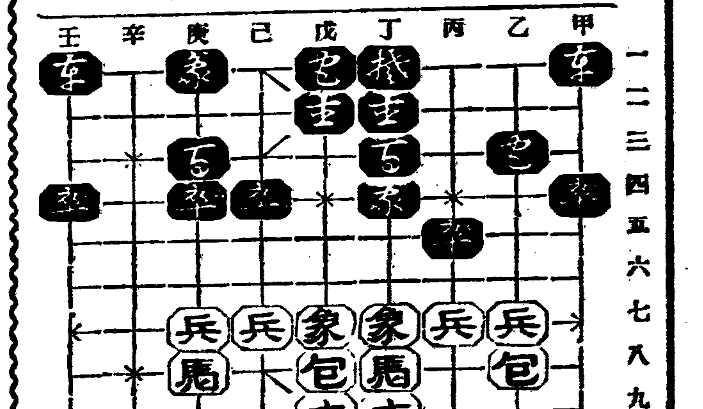
이러케激變하는 動搖가운데서도그들은 正當한統制밋헤에다各各그맛흔分野의 特色을이저버리지안코 活動한것이 더욱注目할만한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中國映畵史界의第一頁를들칠때 往年의 日本時代劇과가티 武俠片이 얼마나만헛든것을알것이다. 그러나지금은 外國에 留學하는사람도늘고 올케映畵藝術을 研究하야서 이전에比하면 刮目相對할것이잇스며 近來의傾向으로는 映畵는藝術을通해서『프로레타리아』的構成을向하고잇고 監督이나 俳優諸君도 顯著히 眞實해져서正히中國映畵의 革命期이라는 感이잇다 그리고 이러한傾向의 背後에는 中國映畵의 가장正當한『모토』로서의民族復興』의精神이호르고잇는데『民族映畵』에서『文化映畵』로서의 道程은 蘇聯의 映畵를보드래도 明白하드시 今後의中國映畵를理解하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三)

手先 漢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二十手圖▶



戊八包—戊十

甲四馬—乙四

甲七車—甲一打車

戊一馬—甲一打車

戊七包—丙十

乙四馬—乙五

壬七車—壬六

甲一馬—己二

壬六車—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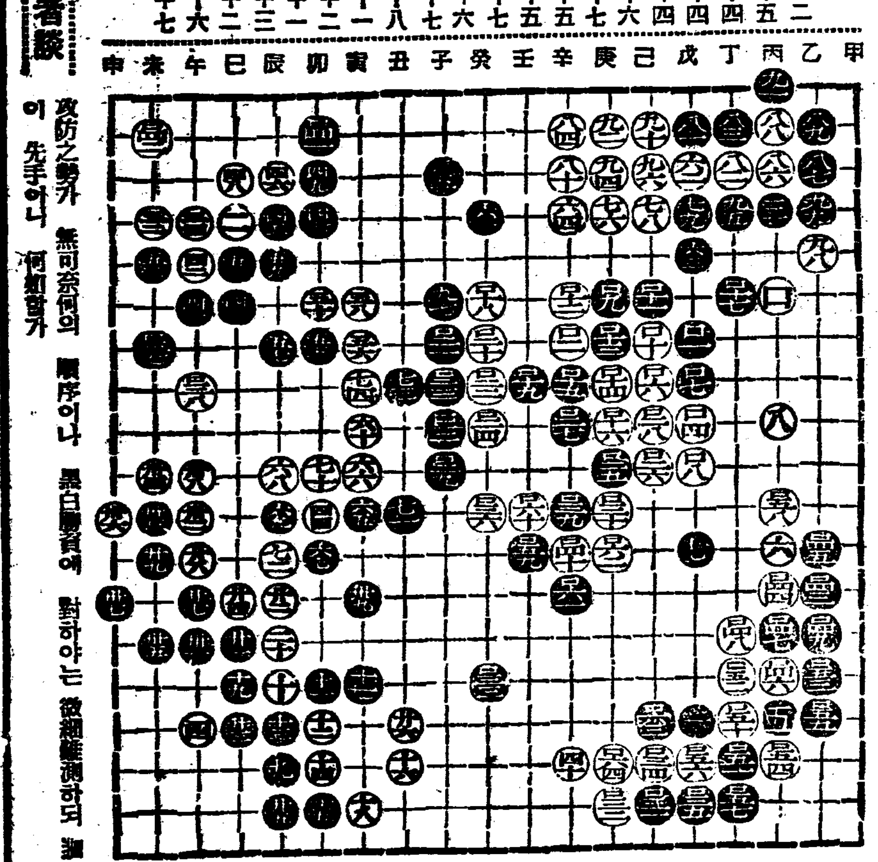
丁四馬—庚二

◀三十手圖▶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白 丁奎春
黑 權秉郁

●百 乙의十二
○百一 丙의十五
●百二 丙의十四
○百三 丁의十四
●百四 乙의十四
○百五 丁의十六
●百六 丁의十七
○百七 丁의十五
●百八 乙의十五
○百九 丙의十七
●百十 乙의十六
○百十一 戊의十七
●百十二 丁의十八
○百十三 丙의十一
●百十四 壬의十二
○百十五 壬의十一
●百十六 辛의十三
○百十七 庚의十二
●百十八 己의十六
○百十九 庚의十七



◆觀戰者談 攻防之勢가 無可奈何의 順序이나 黑白勝負에 對하야는 微細難測하되 이 先手이니 何如할가

映畵界短信

리퍼부릭會社의 首腦部가更迭

리퍼부릭 픽추어스社長 W·레이·존스톤氏의 聲明에 依하면 리퍼부릭映畵製作에 關與하는 리퍼부릭·푸로덕손의 社長 로렌·카氏는 辭任하고 낫트·레빈氏가 그後任으로 就任하얏다 그리고 콘소리데텟드·필림의 副社長 헐리·빈센트氏가 리퍼부릭·픽쥬어스의 取締役 會長으로 就任하고 실스·마니저도 更迭하얏다 이更迭은 리퍼부릭의 出資者인콘소리데텟드社長 허버트·J·예스의掌裏에 리퍼부릭의 全權이 돌아가는것을 意味하는것인데 토렌·카는 리퍼부릭의 全身인 모노그람·픽추어스의再興을 計劃하는모양이다

로이드의牛乳 장사야를 웃음이나 늘 明朗한 웃음은 오죽로이드가 아니면 보여주지 못하는것이다. 牛乳장사되 로이드君은 또 사람으로 하야금 얼마나 웃읍게 하려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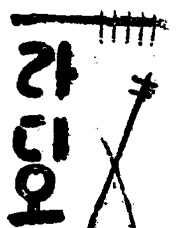
不孝子

人氣의타ー산

水上의覇者로서 多年間 世界水泳界에 君臨하고잇는 米國選手『죠니·와이즈물라ー』는 職業選手로 轉向한後『타ー산』其他의 映畵에出演해서 여기서도 世界의 人氣를 한몸에모호고잇는바 偶然히 그어머니가 二百五十四弗이라는 小額의寃代를 滯納한때문에 法廷에까지 불니게되엿슴으로『죠니ー』君의 오늘날까지의 人氣는 갑작이不孝漢이라는 非難으로 變하고말엇다.

이제 그經緯를듯건대『죠니ー』君의母親은『시카고』의 어느『레스토랑』에서週給十六弗이라는 薄給의料理人으로서 孤獨한生活을 하고잇섯는데 數年前『크레센트街八百三十三番地의『아파ー트』에 住居할때의 房貰는 當然히 그아들와이즈뮬라ー』가 支拂해주리라고 미덧든것이 이때까지支拂하지안헛든때문에 法廷에불닌것인데『죠니ー』君의 말을듯건데 自己는每月百五十弗로부터 百七十弗假量이나 그母親에게 보내니까 그母親도 그다지困窮하지는 안혀스리라고한다。

라디오



五日 (木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西班牙멜로듸ー 二、行進曲…길리니作曲 2、랑고…金炳國編曲 二、圓舞曲 1、묘쇼릭스…토듸안作曲 2、女學生…월드토이펠作曲 三、크리안·라덴트…洪蘭坡作曲 四、組曲靑春의行進…金炳國編曲 金炳國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講演『受驗의秘訣』 沈亨弼

◇同八時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令 吳翠翠 愼淑 大笒 朴錦鳳

◇同八時三〇分 未定

◇同九時 俗曲 一、景福宮아리랑 二、咸鏡道아리랑 三、江原道아리랑 四、密陽아리랑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쌍笒 池龍九

◇同九時二五分 詩調와誦書 一、詩調 二、三說記 李文源

第二放送

◇午後六時 (名)이야기

◇午後六時二五分 (大)趣味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舞臺劇

◇同九時〇〇 (仙)俚謠

六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東) 女聲合唱

◇同三時一五分 奉祝講演 地久節을當하야 張和順

◇同六時 童謠 忠信學院女生徒 伴奏 金龍燮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算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 生活과勤勉 李克魯

◇同八時 歌詞 一、白鷗詞 二、乾坤歌 文山紅 金錦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野談 申鼎言

◇同九時 (東) 室內樂 鈴木耆明

第二放送

◇同九時三〇分 (東) 時歌

◇午前一〇時 (東) 어머니의講座

◇午後六時 (東) 童謠劇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 御歌講詠

◇同八時一〇分 (京) 新箏曲

◇同八時三〇分 (東) 長唄

◇同九時 (東) 室內樂

七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同三時一五分 新生講座『春節과衛生』 崔·義泳

◇同六時 童話劇『黃金王』一景 (配役) 黃金王……沈相默 公主……金貞喜 신령님……朴英泰 侍從甲……李貴鏞 同乙……金和植 百合어린이會 指揮 金順禎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高永煥

◇同八時 流行歌(레코ー드)

◇同八時一〇分 피아노獨奏 一、慰安曲 리스트作曲 가、F調曲 나、쫄레드長調 二、葬送曲 리스트作曲 三、꾀꼬리 蒙田光吉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금愁心歌 三、楚漢歌 四、寒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大笒 金永根 鼓手 池龍九 沈相健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 가、진양됴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洪城歌 나、夢中歌

第二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二時(大) 婦人時間

◇同六時 이야기

◇同六時二十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同七時四〇分(東) 立體漫談

◇同八時三〇分(東) 講談

◇同九時(東) 時事解說

病弱體에 エビオス錠

에비오스정

발육이좃치못한어린애에게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의발육(發育)이 좃치못하고 아모리조흔음식물을먹여도 잘살로안가는때는 그父母의걱정은 무엇보다도큰 근심일것입니다. 「밥투정」「반찬투정」을하면서도 잘먹지안는 어린애들은 반듯이 밥맛을업게하는원인이잇서々 그런것이니 아편때에는 일반영양학계서나 전문의사계에서추천하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錠』을먹이시면 밥도잘먹고 먹은것이모다살로가며 병에대한抵抗力이强하야저서 몸도튼々해짐니다

그것은「에비오스」의主要成分인「비다민 에이、비、씨、디、이」와「갈쉬움」「크리코겐」이외 二十餘種의 貴重한活性酵素가 全的으로 全身의榮養에吸收되는까닭입니다。

慢性胃腸病에는 반듯이 原因療法으로

머리가 늘 무겁고 변통이 좃치못하며 배속이거북한분은 흔이 一時的듯는다고 위산消化劑 便秘藥等을使用하시나 이것은 인이백이거나 더욱병을심하게하는수가만흐니 반듯이 根本的으로 위장를튼々히하여주며 위장의운동을 민활케하야 自然的으로 변통을 좃케하고 몸全體의衰弱을 速히 回復식혀주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로 原因療法을하여주시기바람니다。

즉「비다민비」가不足하면 口味가안돗고 위장이弱하야지며 全身의活動力이衰弱하게되는것이니 비다민비와 貴重한各種의酵素의진국인麥酒酵母에비오스로 치료하시사 건강의幸福을어드주십시요。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 各種粉末이잇습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삿뽀로·아사히·유니온·에비스麥酒醸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馬越藥學博士創製 稻垣農學博士監製

貧閥의漸次進出로 群小漁業者沒落
動力及日本型漁船逐年增加
黃海漁業의最近面貌

【海州】 황해치신노트(?)에 궁한 해안선을 갓고잇는 황해의 연안(沿岸)은 동해어업지대로유명한 한남의 다옥가리만큼 유명한 어장(漁場)으로 세상에널리알려진것이거니와 이러한 보고(寶庫)도 시대의 변천과 한가지로 재벌의무서운 위력에 얼들려 지원민의손을떠나 재벌의손에독점되다십히하야 점차로 재래식어업은 급격한 몰락과정을 것고잇다。
즉 동력어선으로 바다의괴롤이라고하는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등에 의한 대규모적어업은 오직재벌의손에서만 움직이고 본토의 연안한어민들은 시대에 뒤떠러진 재래식어획방법과 수단으로 오직로동력을재공하야 그날의생계를 겨우도모해나가는 비참한현상으로 작년중 황해연안에서 작업을한 어선통계(漁船統計)를보면 무동력의조선형어선(朝鮮形漁船)은 오미(五米)미만이 오백오십척 오미이상이 륙백륙십륙척 십미이상이구십척으로 합계 일천삼백륙척이며 일본형어선은 오미미만이 칠십사척 오미이상이 오백이십륙척 십미이상이이백칠십사척으로합계 팔백칠십사척이며 십톤이상의동력선이 삼척으로되여잇는데 이어선급 동력선은 거의 전부가 일본내지인의 손에서 움직이고 잇다한다
전긔와가티 십미(十米)이상의 조선형어선은 구십척에 불과한데반하야 십미이상의 일본형어선은 이백칠십사척이란 놀나운 숫자에 달하고잇서 군소재래식 어선들은 점차로 력략하야 오직이땅의사람들의손에서 그표본을 차즐수잇고 동력어선을 비롯하야 일본내지형어선은 점차로격증하야 재래의 군소업자의 압날을 적지안케우려시키고잇다 한다。만치 그들의앞길이 암담하다고 한다

日本共黨事件 盧女史의出監

【金海】 김해가 나은 녀자사회운동자의 하나인 로남교(盧南僑)(二七)녀사는 소화칠년(昭和七年)에 일본공산당대판지부사건으로 피검되여 이래의징구한세월을 미결에서 신음하다가 이년의형긔가 결정되여 수삼형무소에서복역하다가 삼월이일 구주 좌하형무소(九州佐賀刑務所)에서 형긔를 마치고 출감하야 동사일오전에 향리인 김해에 도착하엿다 한다

釜山第二教育部會

【釜山】 부산부 제이 교육부회(第二教育部會)의 제일일은 예정대로 사일오후두시부터 개회하얏는데 각의원으로부터 각종의 질문이 맹렬이 전개되엿다그 질문의중요한 부분을종합하건대 이만여명의 미취학아동을 가진 부산부로서는 무엇보다 급선무가학교신설 우는학급 증설인대도 불구하고 단지명목적으로이 학급만 증가한것재정이 곤난하다는 구실리면에는 교원급료를 증가한것과 가봉교원의 채용은 불가하다는것십팔개소의 사설강습소 고잇는 근소하다는것등이의 보조액이 결국 원안대로 가결하엿고 가결된안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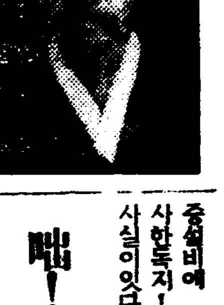
一、昭和十一年度釜山府第二部特別經濟歲入歲出豫算案의件
一、右同 戶別稅附加稅條例制定의件
一、右同 家屋稅附加稅條例制定의件
一、右同 授業料徵收條例改正의件
一、右同 歲入歲出追加豫算의件

私立伊川幼稚園 後援會定總

【伊川】 강원도 이천군읍내 사립이천유치원에서는 지난삼일오후네시부터 동유치원내에서 후원회 정긔총회를 회장리창엽씨 사회로 개최하고 회측에의하야 과거에 일년간의 경과보고 수지결산보고 임원개선을한바 당선된 임원과 토의사항은 다음과갓다

◇討議事項
一、豫算編成及收支決算報告
一、任員改選及會則改正
一、幼稚園後援會費徵收의件
一、其他重要事項
◇改選任員 會長金永石 副會長李昌燁 理事金基炳 金承孫 會計高濬謨 書記張春吉

田庄팔고빗어더서 無產學院에提供
城李箕紹氏壯擧



【開城】 사벽도리(?)하무산학원에 치운겨울에 시탄비조차업서 소풍시간마다 어린학생들은 산에올라가 나무를긁어다가 때여가면서 배우려고발버둥치는정상이 실로보기에 가엽고도 가륵해서 자긔재산의 전부나다름업는 전장을 삼백원에팔고 도이백원은 빗을내서 학교중설비에 써달라고 오백원을희사한독지! 개성에는 드문미거의 사실이잇다
개성부지정 영사일(?)(?町一四一)번지에사는 리긔소(李箕紹)(六?)씨는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으로 평소에 덕망이놉흔유림이든바 매달두번식 명륜당(明倫堂)에가서 아동들에게 륜리문제를 강의하야오든중 엽잇는 성균학원(成均學院)이 사립학교으로 금번에 설비시설을 사정을 불이업도 수용할수업다는 사정을듯고 전긔와가티자긔재산 전부 백원을 긔부한것이라한다
◇寫眞……李箕紹

咄! 同業者謀害한 大塚醫師逐送局

【江景】 지난달십일 공주지방법원검사정에게로 한장투서가 익명으로 들어가서 강경공의정모(江景公醫鄭某)는 과반 서정리동모(西町鄭東某)가 협심증(狹心症)으로 급사한데대하야 응급치료한것이 잘못되엿다고 살인죄의사라는 비난이 물두하니 경찰국까지도 이를 묵살하는듯하다는 모해의 문구가 루진되야잇슴으로 이투서의 출처와 사실의진상을 당지경찰에서는 철저히 규명하라고조사하던중 서정 대총모(大塚某)라는 의사의 소위로 판명되야 지난달십칠일 경찰서에 인치한후 엄중취조를 계속하다가 일건서류를 지난달이십칠일 강경지청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한다

十餘借地人에게 家屋撤去를强要
靑天霹靂가튼土地明渡要求
借地人側對策을講究

【元山】 현하 조선각지에는 탐욕만흔 악덕지주가발호하야 차지료를 삼사배식 무리인상한다던가 토지명도를 강요하는등수만흔 차지인을 괴롭게 하야 필연적으로 그들을 차지인가의결속을 짓케하야 지주대 차지인간의 투쟁이 격화되게하는 형편이거니와 이런사실이 발전도상에잇는 원산에도 잇서 원산의 발전에 적지안흔 타격을주고잇다
이제 그사실을 조사해 보면 원산여전의 산미인인 본정오정목(本町五丁目)이백칠십팔번지 이백칠십구번지 이백륙십번지이백륙십일번지등에 가옥을소유하고잇는 차용운(車用運)외 십이인의 차지인에게 지주인 원산부본정오정목일백이번지 숙야정조(宿野貞助)와 고성군고성면동리오백사십팔번지(高城郡高城面東里)의숙야팔랑치(宿野八郎治)량인은 지난이월십이일부로 가옥철거를 강요한 토지명도(土地明渡)에대한최고서(催告書)를 내용증명으로 전긔차지인에게 송달하야 금월말일내로 명도하지안흐면 법적수속을 취하겟다고강박하야 왓다고한다 이로말미아마 전긔장소에서 주거하는삼십호 이백여명 세궁민은 뜻하지안흔 청천벽력가튼 최고서를 밧고 방금그대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그런데 전긔토지는 본래 원산 모은행소유이든것을 전긔지주가 매수하고 차지료인상도안인 무조건하고 토지를명도해달나고 강요한것이라는데 그곳에 집을짓고잇는 차지인들은 대개가 세궁민인지라 그토지의매수도 어려우리라는바 더욱히매수시에는 평당이원오십전식 주엇다는것을 륙배인 십오원을 주지안흐면 분매치도 안켓다고강경한태도를 갓고잇는 모양이므로 차지인측에서도 결속하고그 대책을 강구중이라한다

萬壽公立普校— 廢校說은無根
移築新築은事實인듯

【平壤】 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소화십이년도에 학급을증가하는편계상 평양부를 상대로 만수보통학교(萬壽普校)의 명도(明渡)를 요구하고잇는바 부에서는 재정난으로 급속히 명도치못하고 끌어오는데 이에 일반은 만수보교의 폐교설까지 돌고잇서서 이로인하여 타교에는 선화리입학지원자가 벌서 삼사배를 초월하고 잇슴에도 만수보교만은 아즉 정원에도 달하지 못한상태인데 부당국으로서는 폐교할의사는 전연업고 십이년도에십칠만칠천여원을 계상하야 십사교실의교사를 신축할 계획미테 방금부지를 구하고잇다는데 일반은 조곰도 폐교설에 고개를 돌리지말고 속속 지원하기를바란다고 한다
으로 일반은 씨의 특지를 칭송치안는이가 업다고한다

定州에電話增設

【定州】 수년내로 발전에발전을 거듭하고잇는 평북정주시내에 현재의 전화구수(電話口數)일백십삼개로서는 도저이 약진정주의 수요(需要)에 만족을 줄수업스므로 정주우편국에서는 전화의 증설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오월하순까지에 신청을밧기로 하엿는데 희망자가 만흘때에는 추첨에의하여 결정하리라고한다

◇……鎭南浦 窮民에게 救急施米光景

宿案의古阜水組 貯水池改良工事
蒙利區域四千三百餘町步
工費三十三萬圓計上

【井邑】 전북정읍군고부(古阜)에잇는 고부수리조합은 삼군(?)심면상십칠개리 사천삼백이십칠정칠반의 몽리구역을소유한바 그몽리구를관개할 종래의 저수량으로 천륙백팔십오립방척(一、六八五立方尺)인대 그중사백립방척은 수지하부의 약륙백정보를 막어 림시저수지로하야 몽리구를관개하게될으로 림시저수지 륙백정보는 루년수량부족으로인해 수확이감소되여 감으로 당해조합과 지주는그에대한대책을 루년강구해오든바 작년삼월이래 그에대한구제안이서서 이안을 총독부에진정한결과 총독부에서도 역시 찬의를표함으로 리사마장총길(理事馬場總吉)씨는 조합각주임과 불면불휴로 구체적설계안을 작성해가지고 지난달이십팔일에 도를거처 총독부에 정식인가원을제출햇다는대 그설계의내용은다음과갓다한다
저수지 언제(堰堤)를 종래보다 사척가량증축하고 림시저수지에 저수할저수량 일천사백이십오립방척을 이개소의 양수장(揚水場)으로 인수하야 몽리륙백정보를 다른경작지와 손색이업게할 방척을 이개소의 에잇는데 종래저수지의 반당수확은 두섬두말이고 개량공사준공후의 반당수확은 석섬두말로 예상하엿다하며 조합비증가문제에대해서는 지주와소작인에게하등의곤난을안주기위해서 조합비는례년과 조곰도상위업고 금번긔채된액과 조합설립당시의 긔채한액의 상환긔한만 연긔하게되엿다는바 금번긔자한상환재원은 매년조합비적립하는칠년월, 조합비를 절약해서 년이천원, 조합차금재일·제이회긔한을구개년으로연장해서년입마칠천원 기타잡수입으로년삼천원, 합계년삼만원식으로서년부상환한다고한다

卓球大會開催
蹴球戰은延期
伊川支局主催

【伊川】 본사이천지국주최로 개최하려든 이천군재일회축구대회는 군내일반선수의 사정으로출전상지장이만홈으로 사월로 연긔하고 다음과가티 전이천탁구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일반선수의 참가를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三月二十二日午前九時
一、場所 伊川公會堂
一、申請金 一人當三十錢(要申請時添付)
一、申請所 本社伊川支局
一、賞品 本社特製메달과副賞
一、抽籤 三月二十一日午後五時 伊川公會堂內에서
一、申請期 三月十八日正午까지

「거지」受難時代 一齊都市逐出

【平壤】 거지 수난시대(受難時代)——평양서에서는 거지로인하여 평양가두의 미풍을 더럽힌다고하야 이미수차 본적지로송화시켜왓는데 사일에도 오전칠시반경 각파출소에명하여 아츰조반을 얻고저 나와도는 거지삼십칠명을 검속하야 본서에서 일단 취조를한후 본적지로 송환케되엿다는데 중에는 범죄자도 잇슬모양이라한다

開城에白晝大火
一戶全燒、損害八百圓

【開城】 지난 삼일오후 두시경에 개성부 궁정 일사백십번지이(開城府宮町)진연중(陳然仲)의 집에서 돌연히 큰불이 이러나삼시간에 두집을 전소하고 룰폿은 다시오진호(吳鎭浩)의집까지 연소하려는것을 개성소방서의필사적 노력으로 동세시경에야 겨우진화되엿는바 손해는 약팔백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실화인듯하다고한다

黃金에눈어두운 惡德債鬼의逢變
文書僞造罪로取調

【咸興】 함남영흥군고령면상통리(古寧面上通里) 김준택(金準澤)(假名)이란사람은 소화십년구삼월륙일에 동리에사는 김재록(金在祿)이란사람에게 일금이십원을 대부(貸付)하고 채용증서에 반제긔한 금년구삼월일일까지라고 작성하엿는데 채무자 김재록은 지난구일일 사일에 우긔금액을 지불할양으로 본변리 합이십륙원을가지고 전긔채권자에게 갓던바 증서에는 의외에도 원금삼십원이라고 씨여잇기때문에 자간 왈시왈비를하다가 결국일월륙일에 본변리 삼십구원을물어주엇다는데 그후 그것을탐지한 고령주재소에서는 당사자쌍방을 소환취조한결과 증서에보통이자(二字)로쓴것을 긔회로우긔김준택은 보통삼자(三字)로곳친것이 엄연히 낫타난다는바경찰당국에서는 그를다시 세밀히 조사를한후에 문서(文書)위조사긔(詐欺)등죄명으로 긔소할모양이라하며 황금에 눈이어두은김준택은 경찰의신세를지고잇다고 한다

財政困難으로 育英學院閉鎖

【安州】 초등학교에 입학난이심하야 아동의 가슴을 조리게하는 현하에 십여년의 력사를가진 학원이요 수백의 영재를길러낸 안주에 유일무이한 육영학원은 오늘까지 안식교(安息敎)에서 경영하야오던바 근년 안식교에 재정이 극히곤란하야 안

於雲橋架橋費로 五百圓을喜捨
李逢春氏美擧

【鐵原】 철원군 어운면 양지리(鐵原郡於雲面陽地里) 리봉춘(李逢春)씨는 철원김화선(鐵原金化線)도로에 어운면어운교(於雲橋)가업서진흥로 교통상 큰문제이엿든바 이를보고 금오백원을자진긔부하야 금춘에는 도지방비보조와 아울러 훌륭한 어운교(於雲橋)를 가설하기로 되엿슴

酷寒의繼續으로 念慮되는各地麥作

【慶州】 경북왜관지방에는 수십년래처음보는 혹한이장긔 계속하야맥작(麥作)은 전멸상태에빠저 지방농민들은 매우 우려하든차에 설상가상으로 지난이십일에는또 다시 때아닌 대설이·계속하여 맥작은 영영전멸상태로서 세궁민들은 금춘에 봄보리를 갈라하야도 봄보리씨도 개개업슴으로 왜관지방일대 구면(九面)에서는 그들 세궁민들은 무엇을 먹고 장차 사라갈는지 매우불안에 싸여잇다한다

【寶城】 전남보성지방에는 수십년래에 못보던 혹한과 적설이 세전세후를 통하야 련속부절하얏슴으로 지방농민은 맥작에대하야퍽 우려중에 잇섯는데 요새에 또 혹독한치위가 습래하야 때아닌 백설이 분분하게 련일계속하고 일긔가 풀어질줄을 몰라서 보리는 다얼어죽어버리고 다시회생할수 업게되여 금년의맥작은 전멸상태를 면하기어렵다고 일반미신은 불안과 공포에 싸이여잇다한다

【淳昌】 전북순창지방에는 작년겨울부터 수십년래에 처음보는 적설과혹한으로인하여 일반농가에서는 금년맥작을 무한우려하든중 지난이월이십사일부터 척여의대설과 혹한이 재습하여 날세는 지금것풀니지를알고 척설은 의연히 그대로남아잇서서 금년의 맥작은 완연절망상태라는바 일반농가에서는 춘궁이 불원한이때에 유일의맥작까지 절망케되여 장차어떠케살어나갈것인가? 인심이 대단불안중에 싸혀잇다고한다

【茯橋】 삼십년래 처음인 강한의 괴롬과 연속된적설에따라 모맥(牟麥)이 대부분 어려죽엇슴으로 인심이 매우흉흉한바 한재 풍재 수재등의 각종재해로 인하여 삼사할의감수된 농작물을농민의 고혈과착취에 급급하는 지주들에게 다빼앗기고 삼순구식이나 다름업는생활로 보리나기만 고대하는대중의 생명선이춘분당한잇때까지 연속되는 강한의 괴긔후에 다어려죽어서농비는고사하고종자까지 못찻게되것이 대부분임으로 긔한에 전전긍긍하는 대중의 안타가운참황은 구불능언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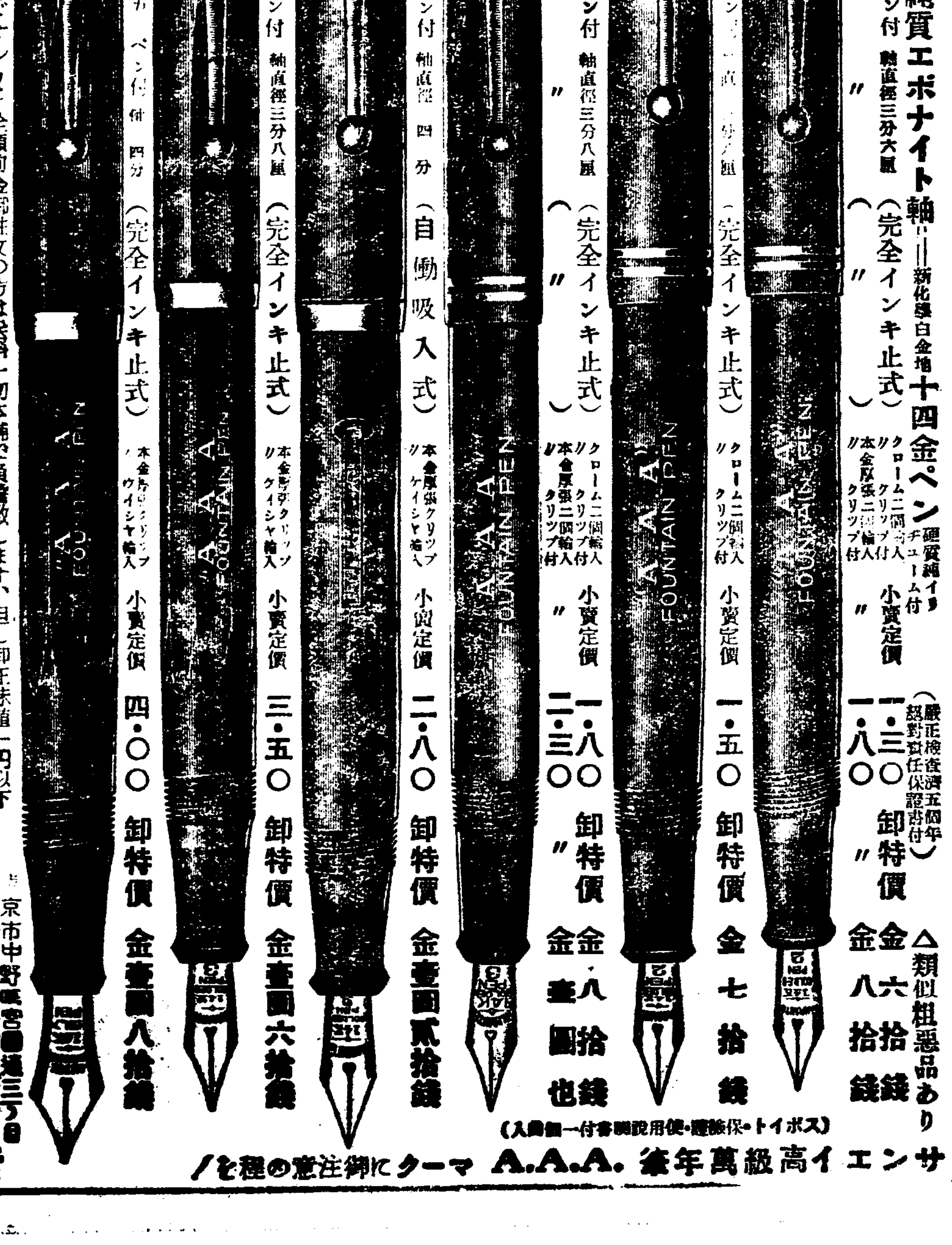
【阿火】 경주지방에서는 지난 구정월에는드러 전후삼회에 이척여의 적설을보고 맥종을예상한것도 남가일몽이되여 때아닌 모진치위에 례년가트면 벌서 이삼분이나 생장하엿슬 보리싹이 아즉 조곰도 나오지아니하야 대부분이 동사한모양인테 금번맥작은 대개 전멸상태에 임으로든테이후일긔가 순하드래도 오할감작은 면치못할것이라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극도의 공포에싸여잇다한다

新製品宣傳大奉仕特賣

萬年筆同業者及共同購入の方へ大福音！今が御仕入の絶好期

特別奉仕 五圓以上三分引・十圓以上五分引・十五圓以上七分引
卄圓以上一割引・卅圓以上一割五分引・五十圓以上二割引
一口御註文高五圓以上に對し下記の通り卸正味値より更に割引出精申候

A.A.A.



高級一等純質エボナイト軸・新化學白金地十四金ペン 硬質縮イリヂューム付

八十號・八十一號 S二號ペン付 軸直徑三分大型 (完全インキ止式) 本金張二個輪入クリップ付 / クローム二個輪入クリップ付 小賣定價 一・八〇 / 一・三〇 卸特價 金八拾錢 / 金六拾錢
八十一 S二號ペン付 軸直徑三分小型 (完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二個輪入クリップ付 小賣定價 一・五〇 卸特價 金七拾錢
八十四號・八十五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三分八厘 (完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二個輪入クリップ付 / 本金張二個輪入クリップ付 小賣定價 一・八〇 / 二・三〇 卸特價 金八拾錢 / 金壹圓也
八十七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四分 (自動吸入式) 本金厚張クリップ ケイシヤ輪入 小賣定價 二・八〇 卸特價 金壹圓貳拾錢
九十一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三分八厘 (完全インキ止式) 本金厚張クリップ ケイシヤ輪入 小賣定價 三・五〇 卸特價 金壹圓六拾錢
九十五 Sプラチナペン付 軸直徑四分 (完全インキ止式) 本金厚張クリップ ウイシヤ輪入 小賣定價 四・〇〇 卸特價 金壹圓八拾錢

(嚴正檢査濟五個年 絕對責任保證書付)
△類似粗悪品あり
(右圖は皆實物大です)
(△御註文品不具合の節は交換又は返金等御自由)
(卸新型錄申込次第急送)

取引要項
全額前金御註文の方は送料一切本舗で負擔致します、但し卸正味値一円以下格安品一本のみ見本御入用の節は送料十二錢加算の上御註文拂込願ひます〔送料當方御負擔の事〕代金引換御註文の節は必ず二割以上內金御拂込願ひます。御送金は振替口座御拂込が一番安全便利です、小爲替又は切手代用一割增しも可。

サンエイ本舗 東京市中野區宮園通三丁目 合名會社 鈴木製作所 電話中野六一七五番 振替東京九九一八六番

サンエイ高級萬年筆 A.A.A.マークに御注意の程を！ (スポイト・保證書・使用說明書付一個入)

淋疾 로苦痛하는小便……ネオヂリン(네오지린) 먹으면수월하여진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네오톤토닉 榮養作用圖의內容과價値
上記世界의再建設的强壯劑네오톤토닉의作用이人體生理作用에與하는效果를가장學理的으로圖解한것인데옵셋트版으로十餘色區別하야精巧히印刷된高級印刷物로서此를家庭에두고兒童敎育上에資하고一般公衆의供覽에便한곳에掛置하야醫學에對한常識及一般民衆衛生向上에莫大한參考及敎育材料가된다
(請求次第上記네오톤토닉說明書附榮養作用圖解進呈)

時代난變遷하엿다
虛無孟浪한長廣舌과誇張되여서다
責任업는藥을사는時代는지나갓다
最新醫學原理에符合되고
高貴藥材로研究製造한
世界的强壯劑 네오톤토닉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食慾減退・產辱・一般虛弱及疲勞・萎黃病及貧血・營養障碍・肋膜炎・急慢性氣管支加答兒・傳染病經過後・神經沈鬱狀態・脈搏不整・心臟病・腺病質・恢復期

米國아보트製藥會社 元製造
東洋輸入總發賣元 柳韓洋行 京城・

後任藏相은누구?

山木達雄男、勝田主計와 馬場鍈一、結城豊太郎氏

◇……目下財界下馬評

어떠한 後繼內閣이 나오게될가 또는 大藏大臣은 누가될가하는 것이 오늘에잇서서 注視의焦點으로되어잇다 그런데 目下財界에서 傳하는 大藏大臣의下馬評을 드르면 山本達雄、勝田主計、馬場鍈一、結城豊太郎의諸氏이다 그러고 新內閣의財政方針에對한 財界各方面의意見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各方面觀測內容

强力希望 結城興銀總裁談

後繼內閣에 對하야는 누구가首班으로 되든지 또는 누가藏相으로 選定되든지 政策特히 財政政策에 急激한變動을주는것은 생각할일이로 나는强力의擧國一致內閣이 成立되을

時流를醇化 馬場勸銀總裁談

後繼內閣은 이번事件에對하야 斷乎한方針을 가지고 나가든가 或은 時代의潮流를 參酌하야 이것을醇化식여 가는것이 此際에 要望되여잇는것이로 생각된다 現行稅制에 多少修正이 잇고財政政策에 잇서도 若干의 影響을 주게될는지는 몰으겟다 要컨대 此際 後繼內閣에對하야 希望하는것은 時代의潮流에 잘끌어 醇化하여갈것이다

곳쇼反對 東株 望月委員長談

未曾有의 事變勃發로 財界一般에의 衝擊은 자못 크다 따라 今後如何한 人物이 後繼內閣의 首班으로 될가 容易히 豫測되지안흐나 非常時日本의 立場으로는 實質的强力內閣의出現을 待望하고잇슴은 論할必要도 업다 그러나 財界方面에서는 너무「곳쇼」色彩를 띄운것은 歡迎치안는다 또財政經濟의 重要을 등에진 大藏大臣에 對하야는 特殊한 手腕을 發揮한 人物을 選擇치안코는 안이되겟다 勿論現在의 經濟情勢에 急激한 變化를 招來케할것은 希望치안는다 爲先 手腕力量으로보아 適當한人物이안일가생각한다

姑息排斥 住友銀行常務 岡橋林氏談

財界의要望은 一身에 지고잇든 高橋藏相의後任으로 藏相의責任을 擔當하여 非常時財政을 처리하여나갈 사람으로는 國家財政의 現狀과잇서 將來를 先見하여 金融界財界一般의 安定을計圖할 人物을 要望한다 決코 當面에 拘泥되어 姑息的 政策을 取하여서는안된다 이點은 重大한것으로서 時局收拾의大任을 지고잇는後繼內閣의 藏相에 大見識이잇는 人物을要望할뿐이다

政策强化 大阪商工會議所會頭 中山太一氏

事變의 一人으로서 後繼內閣에對하여 希望하는것은 國防의 財政과 産業의 三政策이 한개 强力化되는것이 必要하다 그리하여 軍部의 一死君國을爲하는 ……를 가지고 一般國民도 亦 私利私慾을 爲하지말고 國家社會를 爲하며 非常時局下에 이難局을打開치안코는 안된다 ……

急變考慮 森廣藏氏談

이번의事件을 契機로하야 時弊의根本的芟除를 圖할것이 ……

多少變化 三菱銀行取締役會長 瀨下淸氏談

後繼內閣은 眞實한 意味에 서 擧國一致的强力內閣이 안이면안된다 이에잇서서 나와가든 老人連은 一切退却하고 各方面으로부터 小壯有爲의 人物을 選擇할必要가잇슬 것이다 或은 財政政策이 多少 改變되지안흘가하는點이 다 그러나 問題의 統制經濟는 이미 今日과가튼 自由競……

漸進政策 三和銀行取締役 中根氏談

後繼內閣은 實質的으로 强力內閣의出現을 希望하는것은 財界人으로서는 高橋財政과가티 漸進的으로 그理想을 實現할方針과 큰變改가 업을줄로 생각하며 또 그것을 希望한다 財政經濟策에 急激한改革은 그것이 아무리 改革等의 惡結果를 招致하는때문에 財政의局에當한 사람은勿論이點을 理解하야急激을避하고 漸進的政策을 取할能力잇는有力者의出現을바란다

經濟政策激變은 財界는絕對回避

擧國一致協力內閣樹立을支持나 惡性인푸레展開危懼

後繼內閣에 누구를 首班으로하야 組織될가 金融界를 비롯하야 一般財界에서는 重視하고잇는데 健全財政을 내세우던 財界安定性의 一大支柱인 高橋藏相을 이저버린데對하야 內面의動搖와 將來의 危懼를 가지고잇는듯하다.

卽一部財界念慮의 根據는 今回事件의 性質上이것을 契機로 하여 從來에比하야 多少 팟쇼的傾向을 帶한 內閣이 出現할가하는데잇다。그럴境遇에 잇서서 大增稅、公債漸減主義 跳躍을招來할것이 아닐가? 인푸레增大의 豫想으로 國債의 信用을低下식히고 財界가 恒常 危懼하던 惡性인푸레 展開의 念慮가 잇다는데잇다。그러나 누가 內閣의 首班이되 고 누가 藏相椅子를 占하던지 間에 現在 經濟機構 金融組織下에 잇서서는 적어도 財政政策에關한限 健全財政의 大方針을 放棄할수업스며 公債漸減主義를 根底로부터 反覆식히는일이 잇서서는 延하야는 公債消化力의 減退、公債市價의 維持困難의 事態를 惹起할것이 明白함으로 가령 後繼內閣의 손으로 國防强化、社會政策의擴大等 實施에依하야 幾分의 積極政策 卽豫算膨脹이잇다하드래도 無謀한 인푸레策에 轉하는 豫想할수업고 財界希望은 이點에 專在하다。要컨대 經濟界 一般은 擧國一致的 協力內閣樹立에는 全面的으로 支持하나 財政經濟政策에 關하야 서는 增稅이던지 公債政策이던지 急進的 積極手段에 訴하야서까지 現行全經濟機構에 修正을 加하여야 하고 混亂에導함과가튼 內閣出現은 極力絕對回避하자는意向이 强하다

公債買氣再燃

【東京電話電通】市場의 急速한 常態化와 同時에 市場資金도潤澤化하야 一時 中絕되엿든 日銀所有公債에對한 一般의買氣가 再燃의兆를보혀 少額이나 四日期近物米穀證券二百萬圓이 賣却되바 今後米券四分利債의 賣行에對하야 一般은 念慮할것이업다고 樂觀한다

金融市場常態

【東京電話電通】時局鎭靜化에伴하야 越月後의 金融市場은 豫想以上의 順調經過를示하야 日銀貸出도 이것을反映하야 一路急縮少를 繼續하야三日附日銀帳面末에 依하면 一億三千三百餘萬圓을 減하야 九億餘萬圓이 되엇다 四日도 七千五百萬圓程度를 減少하야 入億臺에 慘落된 模樣인데 頃日來의 時局緊張關係下에 貸出되엇던分中에서 替銀行分을 除하면 一般銀行側의分은 大槪回收를 了한터로市場은 常態에復歸하야간다

日銀貸出 繼續減少 預金도減少

【東京電話電通】五日에繳越되던日銀帳末에依하면 貸出入億一千六百三十四萬九千圓으로 八千四百二十二萬四千圓減이 되엿스며 一面預金은 繼續하야 四千三百八十八萬五千圓減의三億二千萬九千圓으로되야 兌換券은 十四億七十九萬二千圓으로 五千六百十六萬九千圓減 ……

市中金價反落 賣二十錢低!

一時十三圓賣發(實際德力發表는十二圓五十錢)까지이던 市中金價는 東京事件鎭定 寒氣가풀려鑛山作業等에 依하야 비롯오 反落에入하야 四日午後京城德力發表金賣價는 十二圓三十錢으로 二十錢低이나 買는 十二圓으로 不變이다

米國의鐵道景氣 ◇……目下好轉의情勢

最近 米國의 景氣現象에서 本日은 鐵道의景氣를 抽出할수잇다。最近 米國으로부터의 情報는 鐵道會社의 鐵道用諸材料의 需要가 增大한 結果 鐵道材料製造會社 株가騰貴하다하며 今年第一、四半期의 鐵道會社營業收入은 固定費用을 카바할수잇다는 뉴스가잇다 經濟株式의 鐵道株 二十種 平均市勢도 最近에는 五十弗臺로올라 再昨年 年初來의 高價를 示現하얏다。그리고 鐵道界의 活況은 鐵業界의 景氣와共히 今年의 景氣를 左右하는일이 적지아니한다

그러나 米國 鐵道界의 景氣는 이것을 昨年의 營業成績에 徵하면 些少의 改善을 示하엿다는 程度로 特히 自動車工業、航空機製造工業、道路業等 다른 運輸關係事業의 顯著한 復興에 比하면 좀뒤떠러진 實狀이다。

米國鐵道經濟局의 調査에 依하면 昨年中의 米國 第一流鐵道會社의 營業總收入은 三十四億四千萬弗로 一九三一年以來의 多額을 示하얏다 그러고 이것을 再昨年의 總收入에 比하면 五%一五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一方 營業費用은 再昨年에 比하야 五%四五의 增加로 二十五億七千五百萬弗에 達하야 結局 純收入은 再昨年에 比하야 些少의 增加이다 이는 昨年中의 投資利益率이 一%九〇과 一九三一年來의 好記錄이면서도 再昨年에 比하야 僅少의 增加에不過하다

第一流鐵道會社收入

	總收入(百萬弗)	投資利益率(%)
一九二三年	六、三六〇	四、三三
一九二四年	五、九六八	四、一一
一九二五年	六、一八七	四、七四
一九二六年	六、四六五	四、九八
一九二七年	六、二一〇	四、三〇
一九二八年	六、一九〇	四、六五
一九二九年	六、三六〇	四、八四
一九三〇年	五、三四三	三、三〇
一九三一年	四、二三六	二、〇〇
一九三二年	三、一六二	一、二五
一九三三年	三、〇九六	一、八三
一九三四年	三、二七一	一、八〇
一九三五年	三、四四〇	一、九〇

以上과가티 營業收入의 狀態는 依然縮少한結果 兩者의 關係가 復舊하는데는 今日의 多大한困難이잇다 換言하면 一九二九年부터 一九三四年末까지의 鐵道運賃의 低下가 甚한 結果 鐵道會社收入은 貨物旅客輸送의 低下에 基하야 打擊以上 增加한 今日에도 鐵道營業收入 增加하고 收入도 增收되엇스나 ……

(續)

◇……世界物價指數

	日本(東京)	英國
各國共大戰前(一九一三年)=一〇〇		
一九三〇年平均		
……		

京城水産市場 二月中取引狀況

京城府 水産市場의 二月中取引狀況을 보면 ▲入荷數量八萬七千二百七十八貫▲賣上總額十二萬五千五百九十四圓九十錢으로 十貫當平均

不定量의入札 旭電話에落札

魚油共同販賣三月分不定量入札은 事件으로 遲延되엿스나 再入札의 結果、五日旭電化에 三圓六十三錢으로서 落札決定되엿다 二月分定量에 比하야 四錢低이다

鐵道局세멘트購入

總督府鐵道局의 新年度工事用洋……

朝鮮電力增資 臨時總會에附議

朝鮮電力의 一萬五千圓增資件은 三月十日 東京에서 臨時總會에附議決定키로되바 新資金五百萬圓으로서 三陟開發(無煙炭採掘)資金에充當할터이라고

伊川殖牛契授賞式

【甲川】江原道伊川金融組合에서……

鰮粕直賣에制限 市價低落念慮關係로

朝鮮産 鰮粕의新統制方法으로서 一部直賣實施는 그波及하는바가 큰만큼 重視되든바 그前提인 五道의 水産組合聯合會 機關設置에對하야 目下水産課 上山囑托이 組織構成의 草案을 進하고 늦저도 五月中旬頃까지에 京城에 本部를두는 水産組合聯合會의 新設을 보게되리라한다。一部直賣의 實施方法은 聯合會設置와 併行하야 考究될터인데 無制限으로 直賣制를 取할때는 市價를下落케될 念慮가잇슴으로이것을 參酌하야 鰮油의 指名入札者의例에 倣하야 一定한 制限을 附할 豫定으로 目下이런點에 對하야 愼重硏究中이라한다

對滿商談不振 貨의不足으로

在滿日本商館은 最近貨車極度不足으로 一般貨物의輸送이 不圓滑함으로 哈爾賓以遠向大量貨物商品의期近取引은 一般的으로 消極的態度이오 一部期近의新規取引을中止하고잇는데 北朝鮮向滿洲奧地向輸出商談은 中絕狀態이다

▲鳥賊 五、八三〇

價額은 十四圓三十九錢이엇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入荷數量一千五百五十二貫 賣上額二萬四百八十圓二十二錢의 增을보히고 十貫當平均額도 二圓十三錢의 增을보이어 京城府內의 消費가 意外로 增加되엿슴을 알수잇다 그런데 去二月市場에나 온主要한 魚物은 아래와가튼것이잇다

▲가지미 一八、八九五圓
▲鯖(가레이) 七、一三五
▲가재미(하라메) 六、三八〇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今日止 / 比前日
大阪期米 先限
正租(仁川)一等
正租(仁川)二等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三圓 / 一匁買 十二圓
銀 十七錢

◆株 (單位錢)
朝新 東新 日産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고무 現

四月局鐵米發送

今年 前年 比較
釜山 京城 大田 平壤 元山 城津
合計 累計

米日爲替少落

【經濟四日發同盟】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比較하면 賣二十九弗十二仙으로 三仙低이오 買二十九弗十仙이다
▲東京爲替(五日)
▲大阪爲替(五日)

經濟界消息

○漢城銀行素砂出張所 九日開業=漢城銀行의 新設素砂出張所는 來三月九日부터 開業키로決定初代主任은 本店支配人代理鄭樂天氏로決定하얏다고
○小野田洋灰三陟工場能力=朝鮮小野田洋灰의 三陟工場은 第一期計畫은 昭和十年末까지에 火入을行할方針으로 工事中인데 第一期計畫完了後의 能力은 年產十八萬噸으로 將來는 三十六萬噸의 經濟能力工場으로 擴張하기로되엇다고
○三菱商事京城支店長異動=【東京電話通通】三菱商事에서는 二日에 左와如히 支店長級의 異動을 發表하엿다(朝鮮關係分) 京城支店長 大久保繁雄 金屬部長으로 命함 갈깃다 文店長伊藤榮治 京城支店長을命함

朝取短期 解合方法 正式決定內容

朝刊旣報=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四日商議員會를 開하고 短期建玉處理에 關하야 協議한結果如左決定하얏다

一、三月四日의 取引員組合決議에依한 解合玉은五日午前十時에(表玉及儀玉)附出合을하고 解合價로써 場帖에 登錄하야直時 判取할것

二、右에 依한帖入은 組合決議에서 決定한 左의解合價로써 計算하고 差金其他授受當日正午까지에할

新東株 一五五、〇〇
日産株 七三、五〇
大新株 九〇、〇〇
鐘新株 一五三、〇〇

三、解合玉으로서 休日中乘替할 建玉에對하야서는 乘替를하지 안코 解合할

四、解合玉以外의繰延玉은 立會開始日의後場大引에 一括하야乘替하고다음 乘替는 當日부터

五、解合玉에 對하야서는 賣買手數料委託手數料를 徵收치안흠

六、左記銘柄에對하야서는 五日正午現在建玉에 對하야 臨時增證據金을 賣買雙方으로부터同日午後三時까지에 納入케함

	取引所取引員間證據金	委託證據金
東新株	八圓	十圓
大新株	五圓	七圓
日産株	五圓	七圓
鐘新株	五圓	七圓

尙代引總數二千八百二十枚中解合에依하야 生한 一千三百三十枚를組合에서 引受하기로 되엇는데 그內譯은 如左하다 (單位枚)

東新 一一〇
日産 六七〇
大新 三六〇
鐘新 一九〇

東株立會難測

【東京電話電通】東株立會開始는 六日로一部에서 期待하얏스나 五日情勢로는困難할모양같다 卽近衛公의 大命拜辭와共히 時局이 依然 一頓挫를 示하얏슴으로 市場도 그대로再開할수업서 東株理事者와 組合首腦部도 依然 愼重한態度이오 事態의推移를 기다리는 休會續行의意見을決한듯하다

朝取證券部臨休

朝取證券部는 各地株式市場에 順應하야 五日도 臨時休會이다。

株式 各地모다 續休

【東京電話通通】全國各地株式市場은 五日도 一齊 臨時休會이엿다

商況 【五日】

不安時買論과 政策變化問題

再開後市勢는 輕斷不許이나『好況時買、不安時買』를 最善策이라고主張하는 便이잇스나 强力新內閣出現으로 今後는 一段明朗化、國力一大伸展이란大局的見地를 云爲키前에 먼저 財政經濟政策變化가 어늬 程度의 것이냐를 靜觀할 必要가잇는터이다。

統制經濟移行

二·二六事件은 一部軍隊의 騷擾라기보다도 現下政治經濟上의缺陷에 根據를 둔것이만큼 今後政治情勢變化와 아울러 財政經濟政策의 自由經濟가 歪曲되어 統制經濟로 移行할것도 想像될情勢를 否認할수업슬것이다。從하야 高率配當會社는 配當制限되겟고 增資、增配도 一種

市場六感

株 近衛公에게大命이降下되엇스나 因病辭退▲平沼、宇垣說再燃 다시後繼內閣은 暗礁에 걸닌모양▲東京、大阪、에조차 朝取도 四日短期强制解合이 決定되엇스나 後繼內閣이 이모양이니 組閣까지 再開는기대리바게▲擧國一致强力內閣出現을 豫想하야 또는 低金利徹底、軍擴景氣出發을 期待하야 大局的强氣를 말하는者업지안치만 ▲統制經濟移行에 伴한 財政經濟政策以來 變化過程을 重視할 일 ▲純팟쇼內閣이냐?

米 唯一한弱材로 認하는東京事變도 何等의 影響이업시 陳材化하고말엇다 ▲政府의組閣도 보기前에 市勢의 그自體는何等의 觀念도업시 떠러질 다음것다할뿐인걸 ▲新內閣의 政策이어떠할지몰으는 今日에 잇서 買方針만을 固執하는것도警戒를要할일 ▲朝鮮의短貯가解除된後에는 産地의 出廻가 旺盛할것으로 後期하여온 바인데 아즉何等의 異狀이업는걸▲解除後日淺의 關係도업

中間的內閣이나 何如間팟쇼的色彩를띄울것만은 거의確實할듯하니 모름지기愼重할진저!

지아니하나 大體今年은 萬人이면 萬人의視점이 頑强하야容易히 實放하지안흘것만은事實▲그러나 春暖期가 到來하는今日에잇서 固執不通한다는것도 疑問 ▲集散市場의 在米는 稀薄하나 그러나 産地의 在米는 豊富 ▲그럼으로 앞으로의 米價如何는 確斷할수업스나그러나 需給難의不安이업슬것만은 事實▲이러한關係로보아서는 農家의藏米가풀려나오기만하면 때아닌賣勢壓을加하야 早晩間에一落을告하고야말이라고云云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二月中의米價 大體閑散而已

朝取調査=二月中의 標準正米市勢의 平均並最高最低價는 左記와 如한데 一月中에는 玄米는 大體 軟弱에 推移하엿스나 白米는 正租市勢의 頑强으로 돌리켜 引締되엇서다 그러나 日本內地와의 取引이 不振하엿슴으로 商況閑散하야 値幅도 一月中은 僅히 五十錢平均에 對하야 二月中은 三十錢의平均이다

期米 廿九圓臺回復

前場小戾 昨後場阪地出來 ……

後場續高

當分保合乃已 殘存米發表까지

堂島前場賣買

各地正米

京城頑强

市勢는 前日보다 五錢高唱이나마 場面은活氣가업고 取引은적엇다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少强

實物薄으로 市況이 小堅한形勢이나마 取引은依然閑散이오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

釜山閑況

大邱少堅

群山弱含

木浦保合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濟洞入口) 電話本局二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五四番

株式 期米 玉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 電話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平北寧邊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함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金融 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米穀 五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穀物◆

商品 五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油沖價◆ ◆綿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期米 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各地正租市勢◆